

-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대규모 복합개발, AI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서울형 공공건축의 세계화 등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프랑스와 영국의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도입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I 공무국외활동 개요

국외활동 개요

- 기간 : '25.7.2.(수) ~ 7.9.(수), 6박 8일
- 장소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 인원 : 총 15명(시의원 11명, 시의회 직원 4명)
- 목적 : -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복합개발 및 도시활력제고 정책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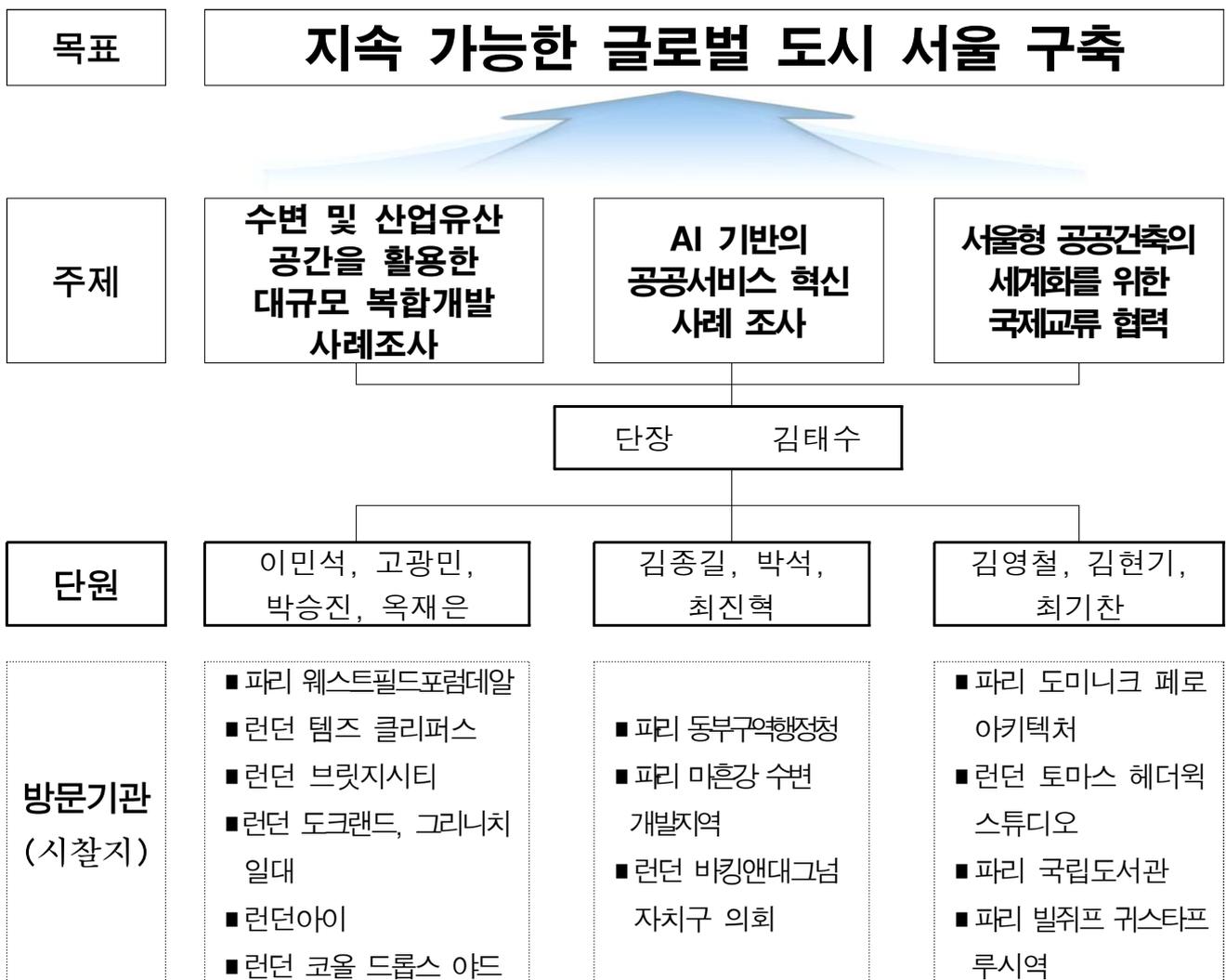
방문단 구성 : 총 15명

- 시의원 : 11명
 - 단장 :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 단원 : 이민석,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 시의회 직원 : 4명(윤은정, 강대만, 이정현, 강주연)

□ 방문주제

- 수변 및 저이용 산업시설 등의 도시자산과 연계한 대규모 복합개발 사례 시찰
- AI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사례 조사 및 스마트라이프워크(SLW) 참여독려
- 서울형 공공건축의 세계화 및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교류 추진

□ 역할 분담



□ 개인별 역할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업무분장
시의원 (11명)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공무국외활동 총괄 [단장]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석	도시 랜드마크형 수변공간 조성 및 교통·문화·상업·관광 복합전략 사례 연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고광민	복합개발의 공공성과 도시공간 연결성 확보, 수변 및 터미널형 공간의 입체적 활용 방안 구상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영철	수변공간의 공공성 강화 및 교통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간전략 구상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종길	산업유산 공간 재편과 AI기반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공간 전략 구상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현기	글로벌 공공건축 디자인을 통한 도시정체성 강화 및 전략적 복합개발 방안 검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박 석	도시외곽지역의 회복탄력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한 수변복합개발 및 공공서비스 혁신 검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옥재은	역사문화 중심지의 글로벌 공공디자인 전략 및 미래지향적 공간계획 수립 구상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최진혁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과 포용정책 실험 사례 분석 및 도입가능성 검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박승진	대규모 유희부지 복합개발사례조사 및 AI기반 복지·안전 등 포용적 지역행정 검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최기찬	산업유산의 재생, 수변공간의 복합 개발, 민간과 공공의 조화를 이룬 도시공간 활용 사례 조사	
시의회 직원 (4명)	시의회사무처 주택공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의원수행 총괄, 국외출장 자료수집 총괄
	시의회사무처 주택공간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강대만	방문 도시 별 의전행사 지원, 현지일정 관리, 의원수행, 사진촬영
	시의회사무처 주택공간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강주연	방문 도시 별 의전행사 지원, 현지일정 관리, 의원수행, 방문지 자료 수집
	시의회사무처 주택공간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정현	현지일정 총괄관리, 시찰단 예산 및 회계 관리, 기관방문 협의, 의원수행

II

주요 일정

□ 날짜별 일정

일 자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1일차 (인천, 파리)	7.2.(수)	아시아나 (OZ501)	1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출발 → DE GAULLE 공항(파리) 도착(18:05) ※ 비행시간 : 14시간 20분
2일차 (파리)	7.3.(목)	전용차량	10: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방문① :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DPA) -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설계비전 청취 및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위상 강화방안 논의 등
			14: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방문② :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 리브고슈 일대의 랜드마크로서 공공건축 역할 논의 - 장기적인 대규모 철도복합개발 프로젝트의 의의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16: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찰 : 빌쥐프-귀스타브 루시 기차역 (Villejuif-Gustave Roussy train station) -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기차역으로, 지하공간을 공간을 효율적이고 미적으로 활용한 우수사례 탐방
3일차 (파리)	7.4.(금)	전용차량	10: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방문③ : 파리동부구역행정청 (Paris Est Marne et Bois) - 시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략과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논의 및 서울스마트라이프워크(SLW)참여 독려
			12:0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찰 : 파리동부 마른강(Marne River) 수변재생공간 - 기후 대응형 수변공간 조성 및 필터링시스템 기반의 친환경 도시여가공간 모델 탐방
4일차 (파리, 런던)	7.5.(토)	전용차량	10: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찰 : 웨스트필드 포럼데알 (Westfield Forum des Halles) - 지상-지하 연계 공간 설계 및 쇼핑몰과 공공교통 환승 허브의 복합 운영 사례탐방
		유로스타	17:10 ~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파리 → 런던) ※ 운행시간 : 2시간 20분

일 자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5일차 (런던)	7.6.(일)	전용차량	09:00 ~ 11:00	◦ 현장시찰 : 템즈 클리퍼스 탑승 (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한강버스 등 한강프로젝트 연관 수변 개발 사례 비교
			11:00 ~ 13:00	◦ 현장시찰 : 런던 브릿지 시티 (London Bridge City) - 템즈강변 수변복합개발 공간 현장답사
			14:00 ~ 16:00	◦ 현장시찰 : 도크랜드&그리니치 일대 (Dockland & Greenwich) - 수변 복합지역 개발 사례지 답사 및 수변이동수단(케이블카) 체험
			16:00 ~ 18:00	◦ 현장시찰 : 런던아이(The London Eye) - 대관람차 운영시스템 및 관광·문화 복합개발 현장 답사
6일차 (런던)	7.7.(월)	전용차량	09:00 ~ 12:00	◦ 기관방문④ : 헤더윅 스튜디오 (Heatherwick studio) - 서울 노들섬 프로젝트 설계의도 청취 및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 등
			12:00 ~ 16:00	◦ 현장시찰 : 코올드롭스 야드 (Coal Drops Yard) - 철도 및 낙후 산업시설의 복합개발 및 역사와 현대디자인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논의
7일차 (런던)	7.8.(화)	전용차량	13:00 ~ 15:00	◦ 기관방문⑤ :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의회 (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 Council) - 복지, 보건, 교육, 일자리, 도시개발 등의 통합 도시정책 논의 및 서울스마트라이프워크 (SMW) 참여 독려
		아시아나 (OZ522)	20:40	◦ HEATHROW 공항(런던) 출발
8일차 (인천)	7.9.(수)	아시아나 (OZ522)	17:30	◦ 인천공항 도착 ※ 비행시간 : 12시간 50분

□ 방문대상지 및 일정 변경 현황(현장시찰 → 기관방문 등)

○ 방문대상지 변경

- (파리) 라데팡스·라빌레트 공원 등 → 파리동부구역행정청·마흔수변재생공간
- (런던) 세인트메리엑스 등 친환경 빌딩 →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
 - ※ 공무국외 심사 시, 라데팡스 등 이미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끝난 유명 지역에 대한 시찰이 진부하다는 비판 의견이 있어 이를 우선 반영하여 제외하고 기존 답사 예정 건물 등은 외관 시찰로 대체

○ 일정 변경

- 기관방문, 현장시찰 각 1일(반나절+반나절) → 건축가 일정에 맞춰 종일 답사일정으로 변경
- (파리)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및 리브고슈 사업지(프랑스 국립도서관), 빌쥐프-귀스타프 루시 기차역
- (런던) 헤더윅 스튜디오, 코올드롭스 야드

○ 변경 사유

- (심사 전) 파리동부구역 행정청과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를 당초 공식 방문지로 계획하였으나 사전 일정 조율이 원활치 않아 제외
- (심사 후) 출국 직전 방문 일정이 최종 확정되어 변경 시행

○ 변경시행 현황

도시	변경전		변경후	
	방문기관(시설)	방문목적	방문기관(시설)	방문목적
파리	라데팡스 (La Défense) 지역	친환경 에너지 고층 건물 사례연구 및 현장 시찰	파리동부구역 행정청 (Paris Est Marne et Bois)	AI 활용 공공서비스 관련 논의, 스마트라이프워크(SLW) 참여 독려 및 공식 초대장 전달
	라빌레트공원 (La Villette), 상카르트 파리 (Le Centquatre-Paris)	저이용 시설 개발 사례 조사 및 현장 시찰		
런던	세인트 메리 엑스 (30 St Mary Axe), 리덴홀 빌딩 (The Leadenhall Building), 로이즈 빌딩 (Lloyd's Building)	친환경 초고층 건축물, 건축 혁신 사례탐방 및 현장 시찰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 (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 Council)	도시재생, 주거복지보전 등 통합 추진 사례, 디지털 포용 등 포용적 도시전략에 대한 논의, 스마트라이프워크(SLW) 참여 독려 및 공식 초대장 전달

Ⅲ 사 전 준 비 활 동

1. 공무국외활동 사전 전문가 간담회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토마스 헤더윅 면담 및 질의·응답·토론 등

- 일시 및 장소 : '24.11.7.(목) 14:30,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및 서울시 직원
토마스 헤더윅(CEO), 닐 허버드(파트너 및 그룹리더),
최희경 소장((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요내용 : 노들섬 조성사업 및 설계 진행사항 공유
 - 노들섬 설계공모작 영상시청 및 설계 진행사항 설명
 - 안전, 교통 및 접근성, 공간활용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 향후 런던 헤더윅 스튜디오 초청 및 논의 제안



분야	성명	주요 이력	국적
건축	 <p>토마스 헤더윅 Thomas Heatherwick (1970, 54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더윅 스튜디오 설립자 (1994~現) · 맨체스터 폴리테크닉 (3D 디자인 전공) 학사 · 왕립예술학교 (RCA) 석사 · Prince Philip Designer Prize (2006), 런던 디자인 메달 (2010),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 (2013), Prix Verailles (2019), RIBA National Awards, Dezeen Awards, Architizer A+ Awards 등 100개 이상 국제적인 수상자 · <Humanise> 서적 저자 및 싱가포르 창이공항 제5터미널, 런던 구글 본사, 하이난 공연예술센터,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미국 마운틴뷰 구글 신사옥, 뉴욕 리틀 아일랜드 등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 수행 	영국
건축	 <p>닐 허버드 Neil Hubbard (1984, 40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더윅 스튜디오 파트너 및 그룹리더 (2005~現) · 골드스미스, 런던 대학교 학사 · 런던 루트마스터 버스, 홍콩 퍼시픽 플레이스 복합시설, 영국 리즈 메기스 센터, 2010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 상하이 와이탄 금융센터, 뉴욕 리틀 아일랜드,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등 수행 · 현재 주로 유럽, 중국 및 일본 프로젝트 수행 및 총괄 	영국
건축	 <p>최희경 (1981, 43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2003~現) · 건국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 인천시 건축상 우수상_영종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2016) · 루트52CC 클럽하우스(2021), 베트남 다낭 신라 모노그램리조트(2017), 삼성 안양골프장 클럽하우스(2013) 등 	한국

2. 공무국외활동 주제 및 방문기관 선정관련 간담회

□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1차)

⇒ 해외비교시찰 대상지 결정, 세부일정 논의

- 일시 및 장소 : '25.2.24.(월) 09:50, 주택공간위원회 간담회장
- 참석자 :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 주요내용 : 방문국가 및 주제 선정
 - 방문국가: 프랑스, 영국
 - 주 제 :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서울 구축

□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2차)

⇒ 해외비교시찰 방문 도시 등 세부내용 논의

- 일시 및 장소 : '24.4.21.(월) 09:50, 주택공간위원회 간담회장
- 참석자 :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 주요내용 : 방문 도시 및 기관 선정, 실무 추진방안 등 논의
 - 방문도시 : 파리, 런던
 - ※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파리), 헤더윅 스튜디오(런던) 초청장 수령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및 스마트라이프워크 위상 강화방안 모색
 - 수변개발 벤치마킹 사례 견학 및 시사점 도출
 - 선진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 현장 조사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사례 조사

1.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DPA)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7. 3.(목) 10:00
- 방문장소 :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본사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파리 13구)
- 방문목적 : 기관방문
 - 지하공간 활용, 복합환승센터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에 대한 설계 철학과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학습하고,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사무소로, 대표작인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을 비롯해 복합문화시설, 환승역, 지하공간 개발 등에 특화된 도시 건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음.
- 이날 방문에는 아시아 총괄 디렉터, 서울 프로젝트 전담 건축가 등이 동석하여 서울시와의 협력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사무소 투어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를 다룸.

①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사례

: GIDC 프로젝트 및 파리 Grand Paris Express

-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진행 중인 GIDC(Gangnam International District Center) 프로젝트는 지하 50m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환승센터 및 공공 공간 조성을 포함하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임.
- GIDC는 지하와 지상의 연결성, 공공성과 도시생활성을 결합한 세계적인 사례로 설계되었으며, ▲자연 채광 유입, ▲지하 공간의 공공화, ▲공간 간 연속성 확보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함.
- 이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 선전과 함께 세계 3대 규모의 교통·공공 공간 개발로 평가됨.
- 파리의 Grand Paris Express(15호선 연장) 사업 역시 DPA가 설계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복수 노선(14·15호선) 환승과 자연 채광 도입, 도시재생 효과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음.
- 이러한 설계 철학은 "지하를 삶의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하여, 시민의 활동과 자연 요소를 결합한 도시건축 모델로 구현됨.

② 비엔날레 및 건축 전시 경험 공유

- 서울시와 협업해 진행한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제2회)의 공동 큐레이션 경험을 공유함.
- 'Crossroads'를 메인 주제로 ▲지상과 지하의 만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물질과 디지털의 융합, ▲자연과 인공의 통합, ▲안정성과 위험의 공존, ▲건축과 토목의 접목 등 총 6개 대주제를 설정함.
- 세계 190여 팀, 40개 대학, 100여개 전시가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건축과 도시계획의 융합적 접근이 강조됨.

③ 주거 재건축 및 서울시 규제환경 관련 제언

- DPA는 현재 다양한 민간 및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특히 외부 테라스, 발코니 등 ‘주거의 외부공간화’에 관심이 큼.
- 서울시의 경직된 건축규제가 ▲자연과 접한 삶의 공간, ▲열린 도시형 주거문화 조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함.
- 외국의 사례를 들어,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지 내 녹지·정원 등 도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개방형 건축을 통해 도시 전반의 밀도와 경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④ 설계 철학 및 사무소 운영방식 소개

- 도미니크 페로는 모든 프로젝트의 개념 구상과 모형 제작을 현재에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소 내에는 공장형 리노베이션 공간과 아카이브, 작업장이 통합되어 있음.
- 전 직원이 개방된 구조에서 협업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공성, 도시 맥락을 고려한 디자인이 설계 철학의 핵심임.

다. 시사점 및 제언

① 지하공간의 공공화

- GIDC 및 Grand Paris Express 사례를 통해, 서울시도 주요 역세권에 지하 환승센터와 공공문화공간을 통합한 도시재생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② 자연 채광 및 도시 쾌적성 향상

- 지하 공간까지 자연 채광을 도입하고, 공공시설에 녹지를 연결하는 설계 전략을 서울시의 도심 고밀도 지역에 적용 가능함.

③ 복합기능 통합 설계

- 교통, 상업, 문화, 주거 기능이 통합된 복합시설 기획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④ 도시건축 규제 개선

- 외부 공간 도입, 용도복합 설계 등에서 규제 유연화를 통해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고,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⑤ 국제협력 강화

- 세계적 건축가 및 사무소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울시 도시정책의 글로벌 연계성과 실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라. 방문 사진자료



2.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7. 3.(목) 14:00
- 방문장소 : 프랑스 국립도서관(파리 13구)
- 동행자 : 도미니크 페로 외
- 방문목적 : 기관방문
 - 설계자인 도미니크 페로의 안내를 통해 공공 건축의 도시적 맥락, 지하 공공공간, 조망 및 채광 전략, 교통·문화 복합시설의 통합 설계에 대한 심층 이해 및 서울시 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건축 컨셉 및 구성

- BnF 는 산업용 브라운필드(과거 철도·항만 부지)에 들어섰으며, 총 면적 약 7.5ha, 60,000 m^2 규모의 광장과 공공공간을 갖춘 복합 단지임.
- 79m 높이의 24층 L자형 유리 타워 4개(‘시간’, ‘법’, ‘숫자’, ‘문자’ 타워)가 마치 “열린 책”처럼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 맥락 및 도시적 연계를 강조함.

② 지하·지상 공간 및 정원 설계

- 중앙에 깊이 파인 ‘숲속 정원’(대략 1ha 규모)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및 지상의 독서실이 이 정원을 둘러싸며 자연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고 있음.

- 높이 차를 활용한 보행교 및 ‘initiator walk’ 동선이 설계되어, 방문객이 도시와 자연을 잇는 경험을 하도록 구성됨.

③ 재료 및 외관 전략

- 더블 스킨(double-skin) 유리 파사드 및 금속 메시, 목재 루버 등으로 빛과 그림자가 유희하는 ‘크리스털 프리즘’ 개념을 구현함.
- 밤에는 내부 조명과 정원 조명이 융합되어 타워 상단에서는 등대처럼 빛을 발함.

④ 도미니크 페로의 설계 철학 및 공간 전략

○ “Groundscape” 철학

: 도시 지하를 공공·문화 기능과 결합하는 지하-지상 연속공간으로 해석함.

○ 도시 재구조화

: BnF는 단순 도서관이 아니라, 동부 파리의 새로운 도시 중심을 형성하는 첫 단추로 기획됨.

○ 사용자 중심 설계

: 독서실·정원·광장 모두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했으며, 채광·조망·소리 등 감각 요소가 설계에 적극 반영됨.

○ 상징성과 기능의 통합

: 4개 타워가 “열린 책”을 상징하되, 동시에 자동화 장치·사무공간·주차·기술 설비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 구조임.

⑤ 시설 및 운영 체계

- 3,590석 규모 독서실(59,070 m^2), 20만평 선반(약 400km 서가,

2천만 권 규모), 700대 주차장 등 복합 인프라 구축함.

- 고층 타워 내부에는 자동화 차량이 유인 선반 시스템을 통해 서적 운반을 수행함.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지하공간의 공공성 강화

- 서울역·강남역 등 역세권 환승센터에 채광·녹지 중심의 지하 숲 정원을 도입하여, 단순 환승 공간을 넘어서는 도시적 경험을 강화할 수 있음.

② 채광·조망을 통한 복합 기능 공간 개발

- 도심 내 공공시설(도서관·복합청사 등)에 자연 채광 및 조망을 고려한 설계 전략 적용을 통해, 건물 환경의 질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증대시킬 여지가 있음.

③ 상징성 기반의 도시정체성 부여

- BnF처럼 ‘열린 책’이라는 상징을 도시 풍경 속에 녹여내는 설계는 서울의 주요 공공건축물에도 정체성 부여 및 지역브랜딩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④ 복합기술 통합 운영 모델

- 자동화 서고·기술 인프라 등 첨단 시스템과 공공 기능의 결합은 서울시 공공시설의 스마트화 추진에 참고할 수 있음.

⑤ 도시정비 선도 모델 역할 수행

- BnF가 동부 파리의 도시 중심으로 변모된 것처럼, 서울 강북 지역 등 도시정비가 촉구되는 지역에 복합 공공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정비 전략이 필요함.

라. 방문 사진자료



3. 빌쥐프 귀스타프 루시 기차역(Villejuif-Gustave Roussy Station)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7. 3.(목) 16:00
- 방문장소 : Villejuif-Gustave Roussy 기차역
(파리 남부, Grand Paris Express 14·15호선 환승역)
- 동행자 : 도미니크 페로 외
- 방문목적 : 현장시찰
 - 설계자인 도미니크 페로의 안내를 통해 초심도(超深度) 복합 환승역의 구조 설계, 자연 채광 유입 기술, 상부 복합개발 및 공공공간 조성 사례를 파악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환승센터 및 복합개발에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역사 개요 및 환승구조

- Villejuif - Gustave Roussy 역은 파리 외곽지역 대중교통 확장 계획인 Grand Paris Express 사업의 핵심 환승역으로, 14호선과 신설 15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임.
- 14호선은 상대적으로 얇은 깊이(약 3.7m), 15호선은 48.8m로 깊이 차가 큰 구조를 가짐.
- 향후 15호선 개통 시, 예상 이용객은 하루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② 구조적 특성

- 환승 공간은 직경 약 70m의 원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시공 효율성, 시각적 상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임.
- 콘크리트 외벽 두께는 약 1m로, 사각형 구조 대비 원형 구조가 하중 분산에 유리하여 구조 안정성을 확보함.
- 돔 형태의 지붕 구조가 상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높이는 약 30m로 설계됨.

③ 자연 채광 유입 설계

- 지하 50m 깊이까지 자연 채광을 유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본 역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임.
- 상부에서 투과된 채광이 광장 공간 및 에스컬레이터 구간까지 도달하며, 사용자가 “지하에 있다는 느낌”을 줄이도록 고려됨.
- 이 개념은 서울 영동대로 GIDC 프로젝트에서도 적용 중인 설계 원칙과 유사함.

④ 지상 복합개발 및 공공성 확보

- 역사 상부는 상업시설과 광장, 주거 및 공원으로 구성된 복합공간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도시 활성화 거점 기능 수행 예정임.
- 특히, 역사를 중심으로 양방향 공원이 연결되어 있어 지역 내 보행 흐름과 커뮤니티 연결을 고려함.
- 상업공간은 총 3개 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입점은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이 일부 공간을 관리하며 분양·운영 준비 중임.

⑤ 비상 및 안전시설 운영 계획

- 지하 50m 깊이임에도 엘리베이터·비상계단·비상통로가 완비되어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고장 시를 대비한 설계가 되어 있음.
- 비상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비상역 기능도 동시에 수행 가능함.
- 매일 새벽 2시~5시에는 역 자체가 폐쇄되어 공공안전과 유지보수를 위한 통제구간 운영이 이루어짐.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초심도 환승센터의 구조 설계 전략 적용

: 서울 영동대로, 창동 등 심도 50m 이상 대규모 환승센터 설계 시 원형 구조와 채광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지하-지상의 통합 설계 모델 참고

: 역사를 중심으로 상업·주거·공원 등이 통합된 공간 설계는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에 적절한 선진 사례임.

③ 자연 채광과 공공성의 결합

: 초심도역 설계 시 단순한 구조 안전성 외에도 심리적 개방감 확보 및 쾌적한 대기 환경 제공을 위한 채광 설계가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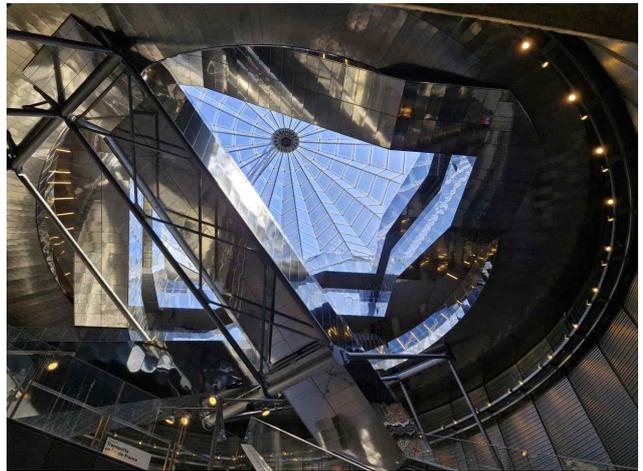
④ 비상동선 및 시민 접근성 개선 필요

: 초심도 구조물의 경우, 비상시 대피 및 수직 동선 확보가 중요하므로 서울시 기준 정비 및 기술 고도화가 필요함.

⑤ 공공·민간 복합개발의 균형 필요

: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복합개발 구조에서 운영권·관리 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라. 방문 사진자료



4. 파리 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arne et Bois)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4.(금) 10:00
- 방문장소: 파리 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arne et Bois)
- 방문목적: 기관방문
 - 13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광역 연합체인 'Paris Est Marne et Bois'의 도시혁신 추진 사례 및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 국제교류 사례 등의 청취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 및 광역도시계획 추진 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아울러 서울스마트라이프워크(SLW) 참여 독려를 위한 초청장 전달식도 진행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파리 동부구역행정청 개요

- 파리 동쪽에 위치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연합기관으로, 도시 혁신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함.
- 인구 약 50만 명 규모로, 파리지 외곽에서 자족적 생활권 및 스마트 도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함.
- 교통, 환경, 문화, 경제, 모빌리티,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된 거버넌스를 시도함.

② 국제협력 사례 및 MOU 체결 현황

- 2024년 서울디지털재단(현 서울AI재단)과 MOU 체결을 통해 교류 기반을 마련함.
- 서울 SLW(Smart Life Week) 2024에 공식 초청되어 파리 동부의 도시 프로젝트를 전시함.
- 고양시, 안산시 등 한국 지자체와도 MOU 체결, ▲모빌리티 ▲문화 ▲환경 ▲경제 혁신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고양·안산 대표단의 현장방문 및 상호 교류 진행하고 있음.

③ AI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

- ‘AI의 사회적 영향력(L’Influence de l’IA)’이라는 국가급 프로젝트를 주도 중임.
- AI를 공공 서비스에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 사회안전망 개선, 시민 편의 향상을 실현함
- 프랑스 국가 차원의 AI 도입 현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④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 확장 사례

- 지역 내 여가·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최근 마른강변(Marne River)에 물놀이장을 조성함.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과 기초행정 간 통합이 핵심 전략임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계획, 환경보호, 주민참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음.

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의 공식교류 및 협력 논의

-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인사 및 의원단 소개
- 서울의 자치구 구성, 시의원 제도,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진행
- 서울 SLW 행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향후 지속 교류 의사 확인
- 피에르 미루도(Pierre Miroudot) 위원장 이하 관계자들과 향후 협력방안 모색 논의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정책 수립 필요

: 행정 분야 AI 도입 및 사회적 영향 분석 모델은 서울형 디지털행정 고도화에 있어 선진 사례로 참고 가치가 높음.

② 광역 연합체 모델 연구

: 기초지자체 간 연합을 통해 도시계획·환경·경제를 통합 운영하는 구조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기능 재조정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음.

③ 국제 교류의 전략적 확대 필요

: SLW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혁신 사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교류 지자체와 공동프로젝트 기반을 확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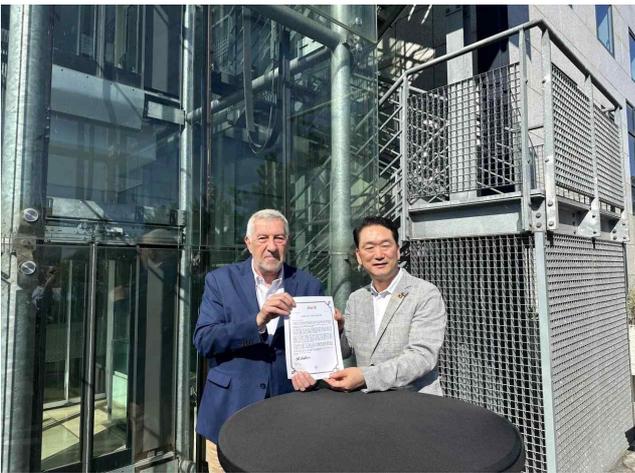
④ AI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 지표 개발 검토

: 프랑스 모델을 참고해 서울시도 공공 AI 정책의 영향력 측정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와 지속가능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⑤ 도시환경과 시민 삶의 질 중심 정책 전환 필요

: 도심과 외곽 균형 발전, 자연친화적 공공공간 확대는 서울 도시계획의 핵심과제와도 직결됨.

라. 방문 사진자료



5. 파리 동부 마른강(Marne River) 수변 재생 공간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4.(금) 12:00
- 방문장소: 프랑스 파리 동부 마른강변(Marne River)에 조성된 시민 수변공간
- 방문목적: 현장시찰
 - 도시 외곽지역의 기후 대응형 수변공간 조성 사례 확인 및 필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도시여가공간 모델 현장 시찰을 통해, 서울시 하천 및 수변공간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수변 공간 조성 배경 및 지역 특성

- 본 시설은 파리 동부지역을 흐르는 마른강(Marne River) 상류 지점에 위치한 자연형 수변공간으로, 해당 지역은 마른강과 세느강이 합류하는 지점과 인접함.
- 2020년대 들어 기후위기와 폭염 대응을 위해 주민들의 여름철 피서 공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자치단체에서 공공 수영 공간 조성을 본격화함.
- 2024년부터 정수 및 필터링 시스템을 갖춘 수질 정화공간을 시범 . 운영하고 2025년 6월 정식 개장하여 시민에게 개방됨.
- 공공 수영장(어린이·성인용) 2개소를 개장하고, 시민 대상 예약 시스템을 도입함.

② 친환경 정수 시스템 도입 (Water Secure Swim)

- 수질 문제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일반인의 수영이 금지되었던 구간이었으나, 최근 필터링 기술 발전으로 일부 공간에 한해 제한적 개방함.
- 강물 일부를 별도 수조로 유입 → 정수 및 필터링 처리 → 시민 이용 공간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설계됨.
- 수직 정수 방식이 적용되며, 수심은 최대 2.5m로 설정되어 안전성과 수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킴.

③ 도시 열섬 완화 및 시민건강 증진 기능

- 여름철 폭염 대응 공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 2025년 여름에는 지역 기온이 38도까지 상승함에 따라 이용 수요가 급증함.
- 단순한 수영장 기능을 넘어, 도시 속 쿨링존(cooling zone)으로 기후적응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중임.

④ 역사성 회복 및 지역사회 반응

- 본 시설은 과거 20세기 초반까지 자유롭게 시민들이 강수영을 즐기던 장소였으나, 수질오염으로 중단됨.
- 약 60여 년 만에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공식 개방한 첫 사례로, 지역 내 상징성과 주민 지지도가 매우 높음.
- 시민들은 “도시 내에서 자연과 여가가 어우러진 삶의 질 향상 공간”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서울시 도심 수변공간의 기후대응형 활용 가능성 확대 필요

: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 서울의 도시하천 역시 폭염 대응 및 시민 여가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② 정화기술 기반 수변 여가공간 모델 도입 검토 필요

: 직접 유입이 아닌 간접 순환 정수형 수공간 개념은 서울시에도 기술적·제도적으로 접목 가능함.

③ 수질·위생 기준 유연화

: 현재 서울시는 수질 기준이 엄격해 하천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부터 시범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④ 도시열섬 완화 및 환경복지 정책 연계 추진 필요

: 기후적응형 도시계획에서 공공 수공간을 단순 환경사업이 아닌 복지 시설로 전환할 수 있음.

⑤ 시민 체험 기반 도시브랜딩 가능성 확보

: 하천이 단순히 경계나 배수 기능이 아닌, 도심 내 일상적 휴식과 브랜드 경험의 중심으로 재인식되어야 함.

라. 방문 사진자료



6. 파리 웨스트필드 포럼데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5.(토) 10:00
- 방문장소: Westfield Forum des Halles 상업·환승 복합단지(파리 1구)
- 방문목적: 현장시찰
 - La Canopée(카노피)의 투명 지붕 구조를 통해 지상과 지하 공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공간 설계 및 글로벌 쇼핑 복합단지와 공공교통 환승 허브의 복합 운영 사례를 시찰하여, 서울 상업·환승 공간 재정비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건축 구조 및 공간 구성

- 2016년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쳐 완성된 'La Canopée'는 유리와 금속 구조가 어우러진 세련된 캐노피 공법으로, 내부 공간에 풍부한 자연채광을 제공함.
- 지하 3~4층 물과 연결된 대형 공공광장(Place Verticale)은 보행자 이동 흐름과 시각적 개방성을 강화함.

② 쇼핑, 문화, 환승의 복합 허브

- 연간 방문객 약 3,400만~5,000만 명으로 프랑스 최대 쇼핑단지 중 하나임.
- 상업시설 외에도, UGC Ciné Cité 멀티플렉스(유럽 최대 영화관), Forum des images(영상센터), 음악·무용·힙합 문화공간 등이 함께 입주하며 문화를 위한 다기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③ 환승 시스템 및 교통연계

- 지상 광장은 Châtelet - Les Halles 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메트로 1·4·7·11·14호선 및 RER A·B·D 노선 이용이 가능함.
- 보행과 교통 환승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구조로, 다양한 도시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한 복합 도시 모델로 평가됨.

④ 'Grand Paris Express' 홍보 전시 공간(Pavillon)의 역할

- 캐노피 아래 설치된 전시 공간(Pavillon)은 Grand Paris Express 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으로 운영됨.
- 특히,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직접 기획자로 참여해 360도 영상과 전시물을 통해 도시와 교통 인프라 재생의 중요성을 쉽게 설명하고 있음.

⑤ 공간의 장단점 및 평가

- 유리 지붕으로 채광이 풍부하고 개방감 있는 구조 덕분에 쇼핑과 환승 경험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음.
- 다만, 일각에서는 상업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이 지하 도시와 충분히 연결되지 않아 단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채광을 활용한 캐노피형 공공 공간 도입

: 서울 강남·시청역 일대 등 입체환승허브 지역에 채광·환기·시각 연결성을 강화하는 캐노피 구조를 적용하여 도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② 문화-상업-교통 복합 플랫폼 활성화

: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영화, 예술, 공연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어 시민 참여와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③ 지하와 지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설계 필요

: 지하물과 지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수직·수평 공공 연결 공간 설계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도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음.

④ 도심 전시관(퍼블리온)을 공공교육 공간으로 활용

: 공공사업 홍보·시민초청 전시 공간 등 도심 환승공간을 공공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사례도 도입 가능함.

⑤ 상업과 공공의 균형 필요

: 민간 상업시설과 더불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설계하고 제도적으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함.

라. 방문 사진자료



7. 템즈 클리퍼스 (Uber Boat by Thames Clippers)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6.(일) 09:00
- 방문장소: 템즈 클리퍼스
- 방문목적: 현장시찰
 - 도심형 수상교통 인프라(정류장, 환승체계, 서비스), 친환경 선박체계, 운영 편의성, 지역경제 연계전략 등의 선진 운영모델을 심층 조사하여, 서울 한강버스 정책의 실효성 제고 도모를 위함.

나. 방문 주요 내용

① 노선 및 운항 체계

- 도심 주요지(오피스, 문화시설, 관광명소, 주거지)를 다수 연결함.
(15개 이상 정류장)
- 아침/저녁 출퇴근 집중 배차, 낮·야간 유람 등의 다양한 이용 패턴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운영하여 연간 약 3~4백만 이상의 이용객을 유치하고 있음.

② 환승 및 접근 인프라

- 지하철, DLR(경전철), 버스 등과 직접 환승 가능하도록 선착장을 설계함.
- 선착장마다 실내 대기공간, 편의점, 마켓, 공유 자전거 설비를 구축함.

③ 스마트 서비스

- QR코드 모바일 티켓, 실시간 위치·운항 안내 디스플레이, 정기권 할인 상품, 장애인·고령자 우대서비스 등을 도입함

④ 지역 활성화

- 선착장 인근에 상시 마켓, 카페, 야외 공연, 지역축제 등 상업·문화 행사를 연계하여 운영함.

⑤ 친환경 정책

- 전기선박, 저탄소 캠페인, 선상 분리수거함, 노후 선박 폐기 및 업사이클 인프라를 조성함.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한강버스 운영 시, 노선 다양화 및 출퇴근·관광·여가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운행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대중교통 환승과의 연계정책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정류장 기반시설(대기실, 자전거 보관 등)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등 첨단시스템화가 필요함.
- 한강과 연계한 상업, 문화행사 활성화를 통해 한강 활용가치와 지역 상권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라. 방문 사진자료



8. 런던 브릿지 시티(London Bridge City)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25. 7. 6.(일) 11:00
- 방문장소: 런던 브릿지 시티
- 방문 목적
 - 수변 업무·상업·문화 복합개발 모델 및 시민참여형 공공공간 운영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서울 한강변 복합개발 및 도시공간 개발정책에 적용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 내용

① 복합적 도시공간

- 템즈강 남단에 업무지구, 상업시설, 주거 및 공공광장(The Scoop) 등을 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역사자산(런던타워, 타워브릿지 등)과 현대 디자인이 공존하여 결합된 공간임.

② 공공·문화 공간 활성화

-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플리마켓, 계절별 야외영화·공연, 어린이 놀이공간, 임시 팝업 부스 등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특색 조명, 라이브 공연 등이 진행되는 등 야간 도시활동도 활성화되어 있음.

③ 공공디자인

- 수변 산책로와 계단식 광장, 조경·녹지 디자인 등의 조성으로 공공 도심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업무·상업·문화·주거·공원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 도입모델로, 단순 용도별 분할이 아닌, 융합형 개발 모색의 시사점이 되고 있음.
- 여의도나 청계천 등 수변지역에 ‘The Scoop’ 과 유사한 공공광장 및 시민참여문화(무료행사, 마켓, 팝업 등), 야간 문화활동 등의 확대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서울의 한강변 복합개발 시 축제, 마켓, 야외공연 등 상설 시민행사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며, 다만 안전한 공개공간 설계에도 유념해야 함.

라. 방문 사진자료



9. 도크랜드(Docklands), 그리니치(Greenwich) 일대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25. 7. 6.(일) 14:00
- 방문장소: 도크랜드, 그리니치 일대
- 방문 목적: 현장시찰
 - 항만·산업노후지에서 미래형 금융·업무·주거 복합특구로 전환한 도시 재생 추진전략 심층 조사 및 서울 한강변, 도시 유희지 재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 복합재생 모델을 분석하고자 함.
 - 세계유산·문화자원, 친환경 주거단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복합사례를 체험하고, 서울 한강변 개발 시, 역사·미래, 문화·자연공원, 커뮤니티 조성 등의 융합전략 적용을 탐색해보고자 함.

나. 방문 주요 내용

① 공간 재생·복합화

- 과거 항만 창고구역을 재개발하여 세계적 금융업무지구(카나리워프)와 고급주거단지, 쇼핑몰, 박물관 지역으로 탈바꿈함.
- 도크랜드 박물관, 역사지구, 산책로, 수변광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② 주거·커뮤니티 활성화

- 다양한 주거형태(고층아파트,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참여형 수변공원 조성 및 주민 커뮤니티 운영 등 주민참여 공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공간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청년 창업,

예술교육, 주민협력 행사)도 진행되고 있음.

③ 교통 및 접근성 혁신

- DLR 경전철, 버스, 수상교통 등 다양한 도시교통망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도보·자전거 길, 공유교통 설비 등 저탄소 이동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음.

④ 공공공간 다양화

- 수변공원, 주말마켓, 다양한 녹지와 야외쉼터, 가족단위 이용자 위한 친환경 놀이시설 등 공공공간의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⑤ 역사·문화자원 활용

- 그리니치 천문대(본초자오선), 국립해양박물관, 세계유산 등 역사적 자원과 전통 마켓, 문화축제 등의 문화자원을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음.

⑥ 친환경 미래주거 단지(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Greenwich Millennium Village)

- 저에너지 주택, 친환경 재료, 대규모 공원과 산책로, 공동체 정원 등 도시 내 생태와 공공공간을 조화롭게 조성함.

⑦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 인프라

- 어린이·청소년 문화 활동, 시민 자원봉사, 예술축제 등의 참여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가족·노년층 생활체육, 공공예술, 지역 상권과 결합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장안평·마곡 등 유희 산업지에 역사 복원을 동반한 현대적 복합재생 모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겠음.

- 공간설계와 더불어, 커뮤니티센터, 공유 기반 시설 등 주민주도 공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친환경 교통·주거·에너지 인프라 등의 복합개발 전략 추진이 필요함.
- 런던의 선진 도시공간들은 각기 특색 있는 복합공간 조성과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 공공성 강화, 친환경 정책,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고 있음.
- 서울시도 한강변 등 공공공간 개발에 있어 이러한 복합화, 공공성, 지속가능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라. 방문 사진자료



10. 런던아이(The London Eye)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25. 7. 6.(일) 16:00
- 방문장소
- 방문 목적: 현장시찰
 - 세계적 관람차의 운영 시스템, 관광객 유치전략,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방안 조사를 통해, 서울 대관람차 추진 시 관광·문화 복합공간 운영 모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 내용

- 템즈강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대표적 랜드마크 대관람차로, 연간 약 4백만명이 방문함.
- 계절·테마별 미디어아트, 야간조명, 광장과 연계된 문화·이벤트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및 주변 산책로·광장·상업시설과의 자연스러운 연결로 운영 방식을 확장하고 있음.
- 온라인 예매, 다국어 안내, 체계적 대기·안전 운영 등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도입함.
- 학교·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서울 대관람차도 단순 조망이 아닌, 문화·체험·상권 활성화와 연계된 복합 랜드마크로 기획해야 함.

- 또한 보행 접근성, 대중교통 연계,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도 필요함.
- 일회성 관람이 아니라, 경관체험과 콘텐츠 중심의 문화체험을 복합하여 설계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역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라. 방문 사진자료



11. 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7.(월) 09:00
- 방문장소: 헤더윅 스튜디오(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지역 소재)
- 방문목적: 기관방문
 - 세계적 건축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도시공간 및 공공디자인 철학 및 서울 노들섬 프로젝트 설계의도를 청취하고,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① Heatherwick Studio 소개 및 디자인 철학

- 2001년 설립, 런던을 기반으로 전 세계 200여 명의 디자이너, 건축가, 조경가, 엔지니어와 협업 중임.
-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설치미술, 엔지니어링을 융합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추구함.
- “기능적이되 감성적인 건축”, “기억에 남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스튜디오의 핵심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람이 오래 머물고 싶고, 만지고, 거닐고, 감동할 수 있는 도시 건축이 중요하다”고 설명

② 대표 프로젝트 사례 소개

- Vessel(뉴욕): 조형성과 보행 체험을 결합한 구조물. 도시 속 ‘걷는 예술’의 대표 사례
- EDEN(싱가포르): 싱가포르 자연과 고층 주거 건축의 조화를 구현한 수직 정원형 타워
- 1000 Trees(상하이): 건물 위에 실제 나무 수백 그루를 심은 자연 + 건축 복합 설계
- Coal Drops Yard(런던): 산업유산 보존과 현대적 상업공간 재구성을 융합한 재생사업

③ 노들섬 프로젝트 설계 주요내용

■ 도시 맥락 분석 및 입지 해석

- 노들섬은 서울 도심 한복판, 한강 가운데 위치하지만 차량 중심 인프라와 고립된 보행환경으로 인해 시민 접근성이 제한된 공간임.
- 헤더웍은 해당 입지를 “도시 속 미지의 공간(urban unknown)”이라 정의하고, 이를 ‘시민이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섬’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라 밝힘.

■ 건축 개념: ‘지형처럼 보이는 건축’

- 전통적인 건축물보다는 ‘조형적 언덕(a man-made hill)’을 조성해 시민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건축적 지형을 구현함.
- 지붕은 ‘건축 구조물’이자 ‘보행 가능한 공공 경사면’으로 기능함.
- 기존 지반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곡면을 활용해 시야를 열고, 도시·강변 조망을 극대화함.

■ 시민 체험 중심 설계

- 건물은 특정 용도에 국한되지 않도록 다층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공연장, 시민휴게공간, 예술창작실, 카페 등 복합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지붕 위를 걸을 수 있게 설계함으로써, 건축과 시민 경험 간의 물리적 접촉을 유도하였으며, “서울 시민이 산책하며 바라보는 풍경과 눈높이를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함.

■ 재료 및 질감에 대한 감성적 접근

- 주 재료로 금속이 아닌 목재, 석재, 자연조화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도시적 따뜻함’ 구현함.
- 건축물이 사람을 압도하지 않고 ‘손에 닿는 감촉’을 줄 수 있도록 세부 마감에 집중함.
- “공공건축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조망과 경관 고려

- 섬 전체를 감싸는 지붕의 곡면은 도시와 강변 풍경을 연결하는 시각적 프레임으로 작동함.
- 건물 내부뿐 아니라 외부 경사면과 옥상 공간에서도 서울의 풍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망 가능하게 하여, 서울 고유의 ‘산과 강이 조망되는 도시 구조’를 반영하여 설계함.

■ 접근성 및 보행 동선 설계

- 동측과 서측에서 보행자 진입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자연스럽게 유도적인 경사 구조로 접근하여, ‘접근로’가 아닌 ‘도시적 여정(urban journey)’이 느껴지도록 설계함.
- 시민이 머무르고, 둘러보고, 올라가고, 쉬었다가, 공연을 감상하는 다양한 도시 경험을 유도함.

■ 노들섬 공간 구성의 핵심 철학

- “노들섬은 시민의 시선을 바꾸고, 서울을 다르게 보게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적 장식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 사이의 감성적 연결을 통한 공공경험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함.

④ 서울 및 한국 도시문제에 대한 조언

- 헤더웁은 서울을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매우 역동적인 도시라고 평가함.
- 그러나 서울의 건축이나 공공공간이 기능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정서적으로 오래 남는 공간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
- 앞으로의 도시계획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편리한 구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고, 관계 맺고,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서울처럼 밀도가 높은 도시는, 수직 공간을 더 잘 활용하고, 입체적인 보행 체계를 갖추는 한편, 공공성과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라.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고립된 도시공간의 재연결 전략 필요

- 노들섬처럼 중심에 위치했지만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걷기 편하고, 전망이 좋고, 문화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함.

② 지형처럼 느껴지는 건축기법 도입 필요

- 건축물을 평면적으로 짓는 것보다, 시민이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 옥상 산책로, 건축형 공원 등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시민 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건축기법을 도입하도록 함.

③ 시민 체험 중심 공공건축 확대

- 공공건축 설계 시, 단순히 '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넣는 것이 중요함.
- 시민이 일부러 찾는 것이 아니라, 걷다가 자연스럽게 앉고 머물 수 있는 편안하고 열린 공공공간 설계가 필요함.
- '보이는 조형물'보다 '느끼는 구조물'로 공공건축 개념 전환을 유도함.

④ 기억과 감정을 남기는 디자인 기획

- 도시 속 공간이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억과 감정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공원, 복합환승시설, 하천변 공간에서의 감성디자인 가능성 탐색이 필요함.

⑤ 서울형 공공건축의 국제 교류 기반 마련

- 헤더웍 스튜디오처럼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잘 하는 글로벌 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도서관, 환승센터, 공원시설 등 서울의 주요 공공건축을 국제적 설계사와 함께 기획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라. 방문 사진자료



12. 코올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25. 7. 7.(월) 12:00
- 방문장소: 코올드롭스 야드(King's Cross, 런던)
- 방문목적: 현장시찰
 - 산업유산 재생과 창의산업 기반 도시공간의 복합 활용 사례 시찰을 통해 산업 기반의 폐시설을 문화·상업·창업공간으로 전환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 내 유사 재생사업 추진 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방문 주요내용

- Coal Drops Yard는 19세기 중반 철도용 석탄 하역 창고(1851년 완공)를 런던 시내 핵심 상업·문화 복합지구로 재생한 공간임.
- 이 지역은 King's Cross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King's Cross Central)의 핵심지로, Heatherwick Studio가 리노베이션 디자인을 맡았음.
- 설계의 핵심은 기존 벽돌 창고 건물의 외형을 보존하면서도, 두 동의 지붕을 곡선형으로 연결해 현대적인 쇼핑 공간과 공공광장을 조화시킨 데 있음.
- 상층부는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층부는 다양한 소규모 브랜드, 스타트업 숍, 식음료 매장 등이 입점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음.

- 특히 외부 공간은 광장, 분수, 계단식 관람공간 등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 여름철에는 야외 영화 상영, 공연, 플리마켓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Coal Drops Yard 인근은 영국 내 문화 중심지인 King's Cross 및 Granary Square와 인접하여,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과 창작 종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과거 산업 기반이던 공간을 공공성과 상업성, 창의성이 결합된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 '도시적 경험을 유도하는 장소'로 성공적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서울 내 유희 산업시설 재생 시 활용모델

: 서울 내 준공업지역 및 폐산업부지 재생 시,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창의적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모델로 참고 가능함.

②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 설계

: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 단순한 상업화가 아니라 시민이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포함시켜 공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함.

③ 도시재생의 디자인적 개입 중요성

: 건축물과 공간 디자인이 시민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시 재생사업에도 감성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④ 역사적 맥락을 보존한 공간재생 사례

: 오래된 건축물과 장소의 정체성을 살려 새로운 기능을 입히는 방식은 시민의 기억과 장소에 대한 애착을 동시에 고려한 재생 방식으로 서울시에도 적절히 적용 가능함.

라. 방문 사진자료



13.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 Council)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5. 7. 8. (화) 13:00
- 방문기관: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
- 방문목적: 기관방문
 - 도시재생과 복지·보건·주거·창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포용과 건강격차 해소 등 포용적 도시전략의 시사점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아울러 서울스마트라이프워크(SLW) 참여 독려를 위한 초청장 전달식도 진행함.
- 주요 참석자
 - 바킹앤대그넘 시의회 관계자
 - 템스 프리포트(Thames Freeport) 관계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위원장 및 소속 위원 11명

나. 기관 개요

① 바킹앤대그넘 자치구

- 런던 동부에 위치한 바킹앤대그넘(Barking and Dagenham)은 런던 33개 자치구 중 하나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도시재생, 산업 전환, 복지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 중임.
- 과거 산업지대였던 템즈강 유역을 중심으로 5만 호 이상 주거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아 사회적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영국 최대 영화촬영단지 등 창의산업 유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음.

② 템스 프리포트(Thames Freeport)

- 템스 프리포트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특구(Freeport) 중 하나로, 런던 동부 템스강 유역에 위치한 DP 월드 런던게이트웨이(London Gateway), 티버리항(Port of Tilbury), 포드 다게넘(Ford Dagenham) 산업단지를 핵심 축으로 구성됨.
- 해당 지역은 세제 혜택, 규제 간소화, 물류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며, 제조·물류·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함.
- 특히 자동차 산업 재편,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산업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와 협력하여 주거 공급, 교육, 일자리 연계 도시재생과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템스 프리포트는 한국 기업(사회복지·의료기술 분야 등)의 유럽 진출 사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와의 도시정책·산업 교류 협력을 적극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함.

다. 주요 협의내용

- 서울시의 디지털 포용 정책과 바킹 자치구의 디지털 접근성 확대 사업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저소득층 및 난민 대상 통신비 지원, 무료 Wi-Fi, 공공 컴퓨터 이용시설 확충 등 정책 교류 필요성을 논의함.
- 바킹 자치구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주거, 복지,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임.

- 템스 프리포트(Thames Freeport)와의 협력 아래, 서울과 런던 간 창업·산업 교류 기반 구축도 제안됨. 실제 서울 소재 12개 기업이 런던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및 건강기술 분야에서 7천만 파운드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사례를 공유함.

라. 시사점 및 정책 제언

① 복합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도시전략 모델

- 바킹엔대그넘 자치구는 복지, 보건, 교육, 일자리, 도시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단절 없이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실현 중임. 서울시 역시 유사한 복합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의 도입이 필요함.

② 저소득층의 건강 격차 대응 전략

- 바킹엔대그넘 자치구에서는 54세에 만성질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런던 중심부에선 평균 70대에 발생함. 소득·거주지에 따른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건강 생활습관 개선, 공공 체육시설,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

③ 스마트시티와 복원의 연계 추진

- 바킹엔대그넘 자치구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건·복지와 연계하여 불평등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 중임. 서울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정책(예: 건강 모니터링, 고독사 예방 시스템 등)과의 융합이 필요함.

④ 시민 체감 기반의 행복 지표 활용

- 바킹엔대그넘 자치구는 행복지수보다 ‘결핍지수(Index of Multiple Deprivation)’에 주목하며 정책을 설계함. 서울시도 생활체감형 통계(소득, 주거, 건강, 교육 등)에 기반한 정책 수립으로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 있음.

⑤ 국제 교류 기반 강화

- 템스 프리포트 관계자는 서울과의 지속 협력 의지를 밝히며, 비즈니스·도시정책 교류를 확대하길 희망함. 2025년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스마트라이프워크(SMW)’ 행사에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정기 교류체계 구축 검토가 필요함.

마. 방문 사진자료



연번	방문기관	방문목적	주요 사항 및 시사점
1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 DPA)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공공건축과 도시설계 철학을 공유받고, 서울시 고밀도 지역과 공공시설의 설계에 적용 가능한 공간 구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	페로는 공공건축에서 ‘지형화 건축’, ‘감각적 공공성’, ‘보행 중심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서울과 같은 고밀도 도시에서 시민의 감성과 체류 경험을 높이는 설계전략으로 유의미함. 단순한 기능 중심이 아닌, 기억과 정체성이 남는 도시 공간 기획 필요. 서울형 공공건축 설계기준에 ‘디자인 국제협업’ 조항 도입도 검토 가치가 있음.
2	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대형 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과 상징성, 도시맥락 속 배치를 체험하고, 서울시 복합문화공간 개발 시 적용 가능한 설계전략과 시민이용 중심 공간 운영 방식을 파악하기 위함.	4개의 타워형 서고가 마치 열린 책처럼 배치된 상징적 디자인은 도시 내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며, 지상·지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용자 친화적 구조를 갖춘. 서울 공공도서관 등 대형공공시설 설계 시, 상징성·접근성·감성적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 설계 필요. 도시 내 공공건축이 문화 아이콘이 되도록 기획해야 함.
3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역 (Villejuif - Gustave Roussy Station)	체험형 지하철역 구조를 살펴보고, 도시 내 지하 공간의 미적·기능적 통합 설계사례를 통해 서울의 지하철역 및 보행동선 재설계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일반적인 환승역을 넘어 ‘도시적 경험 공간’으로 재해석된 사례로, 지하공간임에도 채광과 조망이 확보되며, 곡선형 통로와 경사형 보행 동선이 도입되어 공간 체류감이 우수함. 서울시 강남대로·영동대로 등 고밀도 지역의 지하공간 설계에 있어 시각적·정서적 만족도를 높이는 디자인 전략 도입 필요. ‘기능+경험’의 융합 설계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될 수 있음.
4	파리동부구역 행정청 (Paris Est Marne et Bois)	파리 대도시권 내 광역 행정청의 디지털 정책과 AI 행정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단위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주민 참여 기반의 AI 서비스 설계 사례를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행정혁신 정책 수립에 필요한	파리동부행정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복지·교육·교통 등 서비스 성과를 계량화하는 지표체계도 자체 개발 중임. 서울시는 자치구 단위에서 AI를 단순 기술도입이 아닌 ‘정책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 데이터 연계 체계 등을 정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맞춤형 AI 실험지구’ 조성이 필요함.

		시사점을 얻기 위함	또한, 디지털 기술이 소외계층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형 'AI 포용도시' 구현에 있어 유용한 사례가 됨.
5	파리동부 마른강 (Marne River) 수변공간	파리 동부권의 마른강 수변 재생 사례를 통해 노후 수변공간의 친환경 정비, 주민 참여형 공간 기획, 자연과 도시의 공존 전략을 살펴보고, 서울 중랑천·안양천·한강변 재생에 적용 가능한 통합적 수변정책을 모색하기 위함.	마른강 일대는 단순한 수변 정비를 넘어, 주민 커뮤니티 활동과 생태 회복을 결합한 통합형 수변재생 전략이 돋보임. 기존의 콘크리트 제방 대신 생태형 저류지와 완충녹지를 도입하고, 도시민이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산책로, 수변 무대, 자전거도로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됨. 서울의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등도 단순 정비를 넘어서 '생활 속 수변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행 중심 재설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시정부 협력 구조 확립이 필요함. 또한, 수변공간을 단일 기능이 아닌 '환경+문화+방재+관광'의 복합 플랫폼으로 기획하는 것이 향후 도시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6	웨스트필드 포럼데알 (Westfield Forum des Halles)	파리 중심부 대형 환승 거점과 복합쇼핑몰이 융합된 공공공간 설계 사례를 통해, 지상·지하 공간의 연계 구조와 문화·상업·교통이 통합된 복합시설 운영 전략을 파악하고, 서울도심 (사당, 강남역, 청량리역 등)의 입체 환승공간 계획에 활용하기 위함.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은 유리 캐노피 'La Canopée'를 통해 자연 채광과 개방감을 확보하며, 상업공간과 지하철·RER 등 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성공적 복합개발 사례임. 도시 공간에서의 체류성과 공공성, 소비와 이동의 균형을 강조하였으며, 도미니크 페로가 큐레이터로 참여한 전시관(Pavillon Grand Paris Express)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홍보·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 서울 도심에도 환승 중심 공간에 공공성과 감성적 체류 요소를 강화하고, 상업-문화-교통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이 필요하며, 특히 디자인과 콘텐츠 큐레이션을 결합한 도시홍보 공간 도입이 시사점이 됨.
7	템즈 클리퍼스 (Uber Boat by Thames Clippers)	런던의 수상 교통 시스템인 템즈 클리퍼스를 체험하고, 도시 내 일상적 이동 수단으로서 수상버스의 기능과 운영 체계, 환승 연결성 등을 확인하여 서울시 한강버스 도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함.	템즈강을 따라 운행되는 템즈 클리퍼스는 지상 교통망과의 연계가 우수하고, 정기적·일상적 통근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서울의 한강버스 도입 시, 기존 지상 교통수단과의 통합 운영 및 스마트 결제 시스템 접목도 고려해야 함.

8	런던 브릿지 시티 (London Bridge City)	템즈강변 핵심 복합개발 사례인 런던 브릿지 시티의 도시디자인, 수변 보행네트워크, 역사·문화·상업의 통합 전략을 관찰하고, 서울 한강변 도시계획의 수변개발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함.	런던 브릿지 시티는 타워 브릿지에서 시청사, 오피스, 문화시설, 상업공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변복합지구로, 워터프론트를 ‘도심의 일상 속 공간’으로 재구성한 대표 사례임. 유연한 보행동선, 거리에술과 문화이벤트, 수변광장 등 다양한 공간활용이 인상적이며,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장소 활성화를 실현함. 서울의 한강변도 ‘공원’ 중심이 아닌 ‘복합공간+보행축+문화이벤트’ 중심의 공간기획이 필요하며, 특히 용산여의도잠실 축에 민간참여형 복합개발 모델을 도입할 시 참고할 만한 전략임.
9	도크랜드 & 그리니치 (Docklands & Greenwich)	산업 항만지역이 창의 산업지구 및 주거·상업 복합지구로 탈바꿈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변공간의 복합개발 및 교통체계 연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함.	도크랜드와 그리니치 일대는 철도·수상교통·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복합된 고밀 수변도시로 재편되었으며, 산업 유산(크레인, 창고 등)을 재생자원으로 활용한 창의산업 중심지로 자리잡음. 템즈강과 연계된 다양한 수상교통 실험, 혼합용도 주거지, 기업입주 전략 등은 서울 준공업지역 재편에서 참고할 수 있음. 서울시는 안양천·중랑천 인근의 낙후 산업지대 정비에 있어 ‘기반시설-문화산업-수변보행축’을 결합한 융합형 도시재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주도와 민간투자가 균형된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됨.
10	런던아이 (The London Eye)	런던 도심과 템즈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대관람차 시설을 체험하며, 관광 명소로서의 상징성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대관람차 사업의 정책적·공간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	런던아이는 도시의 대표 관광지이자 템즈강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상징적 구조물로 자리 잡고 있음. 관람차 자체가 관광 콘텐츠이자 도시 이미지 형성 요소로 기능하며, 주변 상권과 문화공간 활성화에도 기여함. 서울 대관람차 추진 시 도시의 상징성, 수변 접근성, 주변 문화·관광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운영수익모델 확보가 중요함.

11	<p>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 (Heatherwick Studio)</p>	<p>세계적인 디자인 건축 그룹인 헤더윅 스튜디오의 도시공간 및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 철학을 청취하고, 서울시의 공공공간 조성 과 공공건축 디자인에 감성적 접근과 창의적 실험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p>	<p>헤더윅은 기능 중심의 전통적 건축과 달리, 시민의 감정, 기억, 감각을 자극하는 감성적 디자인을 강조함. 서울의 공공건축은 기술적 완성도에 비해 감성적 체류 요소나 도시경관과의 융합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있었으며, 이는 강남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한강변 환승센터, 도서관·공원 등 대형 공공시설 설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음. 특히 노들섬 설계 관련 조안에서는, 섬의 '물리적 고립' 문제를 조망, 보행,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 재해석해야 한다고 조안하였고, 도시계획에서 지형화 건축, 수직 공간 활용, 느끼는 공간 설계 등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함. 서울시의 향후 공공건축 기준과 설계공모 방식에 감성적 설계 요소, 글로벌 디자인 파트너십 등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시사함.</p>
12	<p>코올 드롭스 야드 (Coal Drops Yard)</p>	<p>과거 산업 유산이 창의 산업 복합문화지구로 탈바꿈한 사례인 코올 드롭스 야드의 재생 전략을 관찰하고, 서울 준공업 지역의 도시재생 및 산업 유산 보존 활용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함.</p>	<p>코올드롭스 야드는 19세기 석탄 저장 창고를 보존하면서, 루프를 곡선으로 연결한 헤더윅의 디자인으로 새로운 문화·상업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함. 단순한 리노베이션이 아닌, 도시 정체성과 장소 기억을 살린 감성적 재생이 특징이며, 젊은 창업자,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입주하며 도시 활력을 이끌고 있음. 서울 금천구, 영등포 문래동 등도 노후 산업지와 창의산업, 수변공간을 결합한 유사한 여건을 갖고 있어, '산업유산+창의경제+공공디자인' 결합형 도시재생 모델로 참고 가능함. 서울형 도시재정비가 물리적 정비에 치우쳐 왔다면, 향후에는 정체성 보존, 창의적 활용, 감성적 설계를 결합한 재생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함.</p>
13	<p>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 (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 Council)</p>	<p>런던 외곽 자치구가 추진 중인 AI·디지털 기술 기반 포용도시 전략을 청취하고, 서울시의 AI 활용 정책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방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함.</p>	<p>바킹앤대그넘 자치구는 런던 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와 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전환 전략을 추진 중임. 특히 공공시설·도시계획에 데이터 기반 분석을 도입하고, 주민 참여형 도시모델을 실험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서울의 디지털 포용 정책에 중요한 참고 사례임. 자치구 단위에서 AI 기반 정책실험을 유연하게 수행한 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동행 플라자, 스마트 행정 시스템, 지역 맞춤형 공공 서비스 개선에도 시사점을 제공함. 또한 디지털 인프라와 물리적 도시공간 개선을 연계한 전략은, 향후 서울 동북권, 서남권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과의 접목 가능성이 높음.</p>

[별첨자료.1]

도미니크 페로 발제자료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 Thematic + Cities Exhibition
Dominique Perrault
- Guest Cities Exhibition
Choon Choi
- Seoul Exhibition
BARE
- Global Studios
Archiworkshop
- Live Projects
FHH Friends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EAL2021_CURATORS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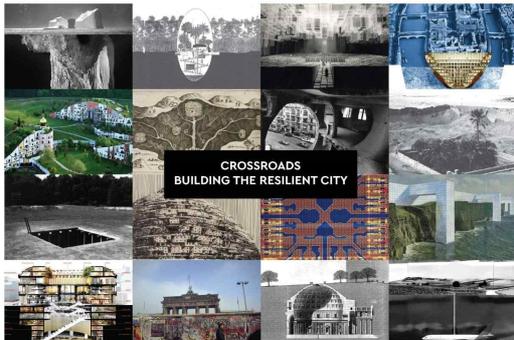
DOMINIQUE PERRAULT
GENERAL DIRECTOR

CROSSROADS,
BUILDING THE RESILIENT CITY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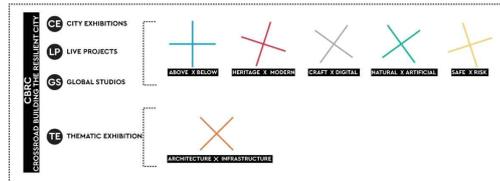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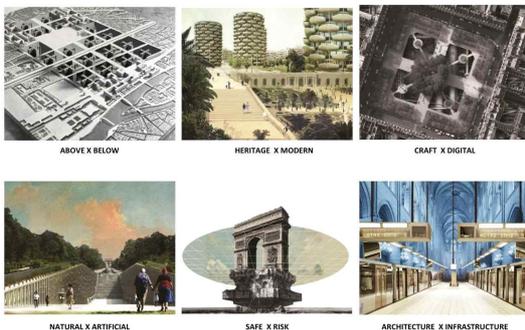
CROSSROADS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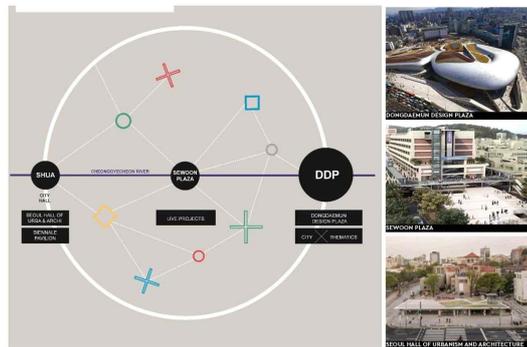
SEAL2021_THEMES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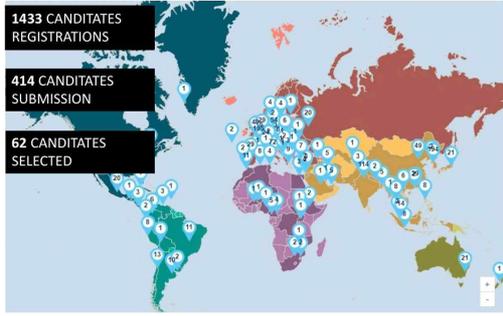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EAL2021_VEN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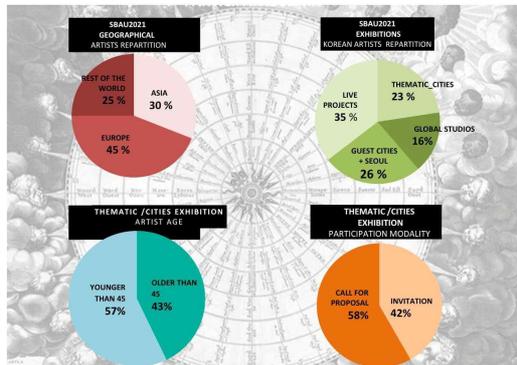
SEAL2021



MORE THAN 1400 REGISTR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MORE THAN 400 SUBMISSIONS



* Provisional figures _ date : May 18th 2021



A PERFECT BALANCE OF ESTABLISHED AWARD WINNING PRACTICES AND PROMISING TALENTED NEWCOMERS
Cities & Thematic Exhibitions

Pritzker Architecture Prize recipients:
- Alejandro Aravena (Elemental)
- Toyo Ito
- Kazuyo Sejima
- Thom Mayne
- Renzo Piano

Praemium Imperiale recipients:
- Toyo Ito
- Renzo Piano

Mies van der Rohe Award laureates/finalists:
- Barozzi Veiga
- Aires Mateus
- Renzo Piano
- Topotek 1

Aga Khan Award:
- Saif Ul Haque
- Topotek 1

other Architecture Awards:
- Kengo Kuma
- Benedetta Tagliabue
- Gustavo Utrabo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EUMiesaward



MORE THAN 100 CITIES IN TOTAL

GUEST CITIES EXHIBITION (SH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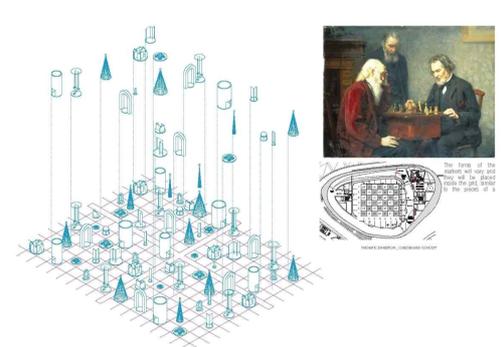
1. Bilbao	12. Copenhagen	23. Seoul
2. Amsterdam	13. Daegu	24. Shanghai
3. Angalia	14. Geneva	25. Sowon
4. Barcelona	15. Hanoi	26. Taipei
5. Basel	16. Jeju	27. Tel Aviv, Ad
41. Berlin	17. Los Angeles	28. Venice
7. Bordeaux	18. Medellin	29. Xiangtan
8. Brisbane	19. Orleans	30. Yeongju
9. Brussels	20. Paris	31. Zurich
10. Chengdu	21. Rome	
11. Chuncheon	22. Rotterdam	

CITIES & THEMATIC EXHIBITION (DDP)

32. Ahmedabad	49. Dhaka	66. Massa Lombarda	83. Sao Paulo	100. Genoa
33. Alice Springs	50. Takahima	67. Miami	84. Seonai	101. Gyeonggi Province
34. Antalya	51. Donostia-San Sebastián	68. Montevideo	85. Shanchuan	102. Incheon
35. Antartica	52. Dubai	69. Montreal	86. Sidney	103. Kaohsiung
36. Asuncion	53. Grand-Lahou	70. Moscow	87. Singapore	104. Lausanne
37. Batsambang	54. Grand-Havia	71. Nouadhibou	88. Taichung	105. Liaokou
38. Beijing	55. Harare	72. Obergoms	89. Tokyo	106. Lishui
39. Beirut	56. Hong Kong	73. Old-Fangak	90. Toronto	107. Mexico City
40. Belgrade	57. Jakarta	74. Osaka	91. Vienna	108. Milan
41. Bergen	58. Jeddah	75. Palermo	92. Vilnius	109. Nancy
42. Birmingham	59. Khon Kaen	76. Parma	93. Xai Tri	110. Naples
43. Bogota	60. Kuala Lumpur	77. Philadelphia	94. Yangpyeong-gun	111. New Glarus
44. Budapest	61. Lille	78. Port-au-Prince	95. Buffalo	112. New York
45. Busan	62. London	79. Quito	96. El Ejido	113. Randstad
46. Cairo	63. Longyearbyen	80. Reykjavik	97. Formosa do Araguaia	114. Salazar
47. Chardonnay	64. Lumutia	81. Rio de Janeiro	98. Fushou	115. Tipton
48. Chicago	65. Manaus	82. San Francisco	99. Gangjin	116. Yokohama



THE CITIES AND THEMATIC EXHIBITION VENUES
DONGDAEMUN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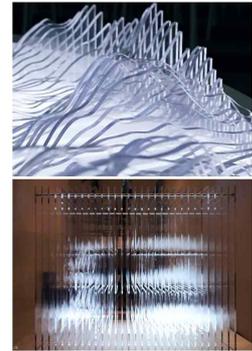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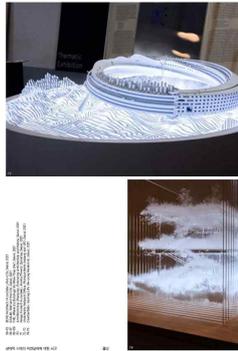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CITIES EXHIBITION_B2F_EXHIBITION HALL
SAFEEX RISK/CROSSROAD + GLOBAL STUDIO REFUGIES 25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CITIES EXHIBITION_B2F_EXHIBITION HALL
SAFEEX RISK/CROSSROAD + GLOBAL STUDIO REFUGIES 25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LANDMARKS
GLP DESIGN ARTWORKS 27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GLOBAL STUDIOS AT DDP
MARC BROSSA/ARCH+WORKSHOP 30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GLOBAL STUDIOS AT DDP
MARC BROSSA/ARCH+WORKSHOP 30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GLOBAL STUDIOS AT DDP
MARC BROSSA/ARCH+WORKSHOP 30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GUEST CITIES AT SHUA
CHOO CHOI 31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GUEST CITIES AT SHUA
CHOO CHOI 31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LIVE PROJECTS AT SEWON PLAZA
FHH FRIENDS 11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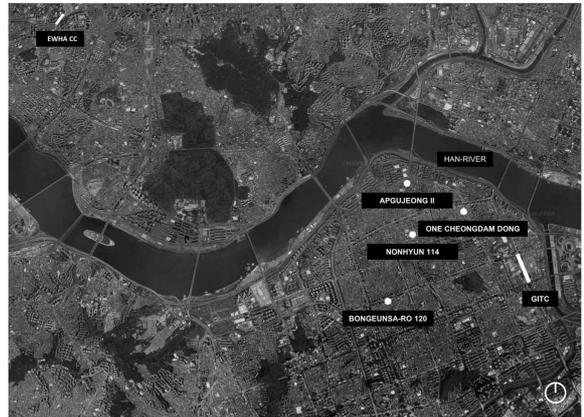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LIVE PROJECTS AT SEWON PLAZA
FHH FRIENDS 11



WELCOME TO SEOUL
OPENING THE 16TH SEPTEMBER 2021
CLOSING 31ST OCTOB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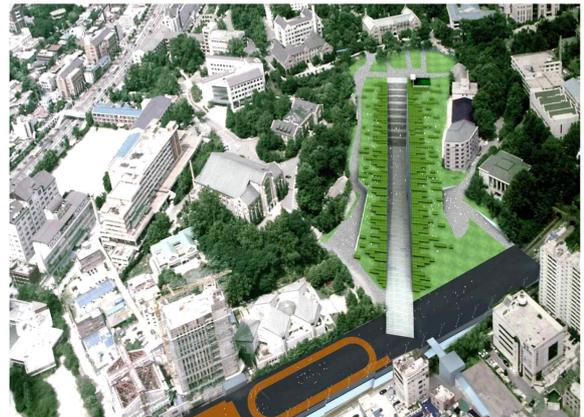


CURRENT PROJECTS IN SEOUL



GROUND AS MATERIAL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8



GROUND AS MATERIAL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8



GROUND AS MATERIAL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8



GROUND AS MATERIAL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8



LIGHTWALK, SEOUL, KORE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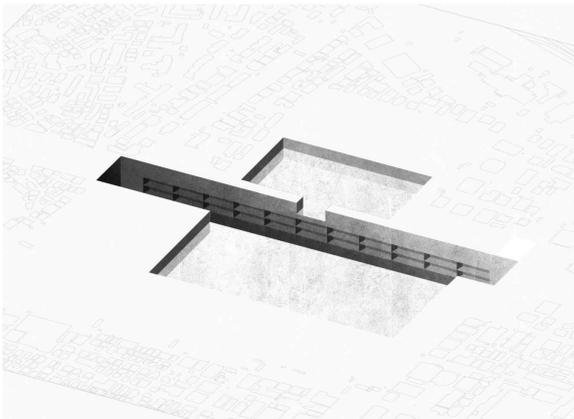
LIGHTWALK, SEOUL, KOREA, 2020



TAGLI LUCIO FONTANA



LIGHTWALK, SEOUL, KORE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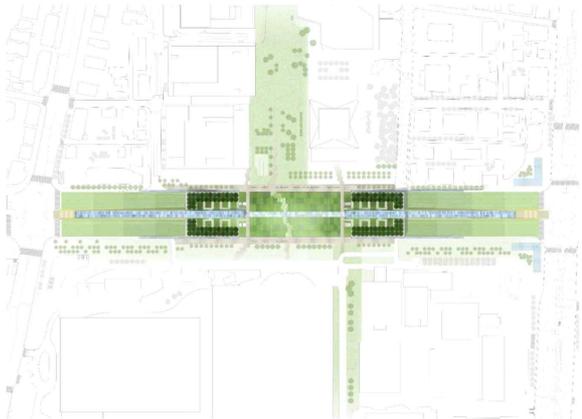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Source: Du Père Le Roy, Paris



LIGHTWALK, SEOUL, KORE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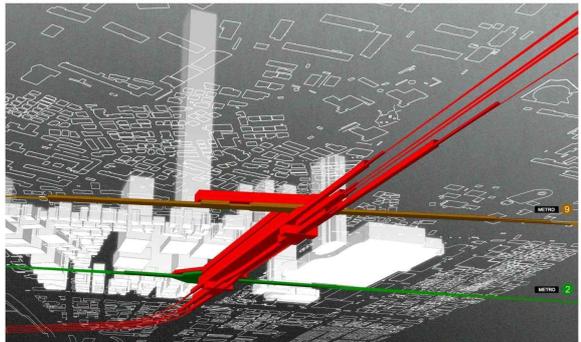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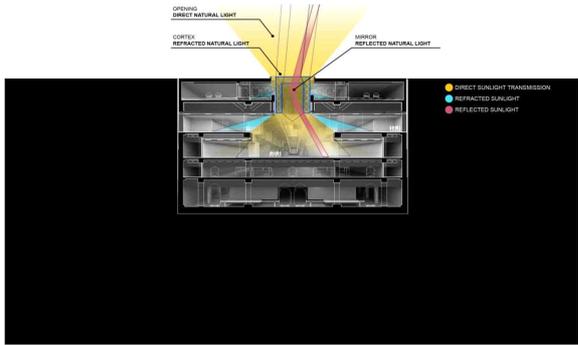


LIGHT

PANTHEON, ROME, 126 AD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Le Phare de Cordouan, Bordeaux, France, 1822



LIGHTWALK, SEOUL, KORE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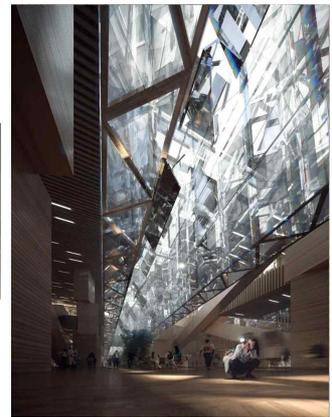
By Isaac Newton, from John Kneller (1687-1688)



LIGHTWALK, SEOUL, KOREA, 2020



Grand Central Terminal, New York, 1913



LIGHTWALK, SEOUL, KORE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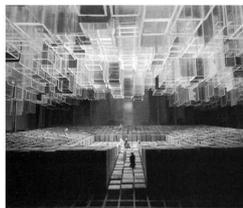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Teatro Lirico di Cagliari, Massimo Sestini,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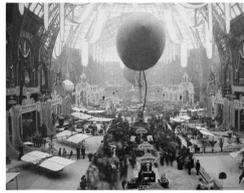
LIGHTWALK, SEOUL, KOREA, 2020



Marzotto Church, Vienna, Peter Wutshof, 1974-1976



LIGHTWALK, SEOUL, KOREA, 2020



Grand Palais, Paris, 1900



LIGHTWALK, SEOUL, KOREA, 2020



© 2020 HOKU DESIGN & CONSTRUC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 2020 HOKU DESIGN & CONSTRUC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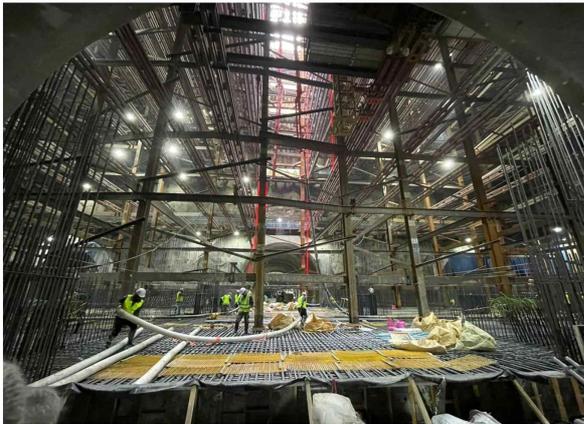
LIGHTWALK, SEOUL, KOREA, 2020



LIGHTWALK, SEOUL, KORE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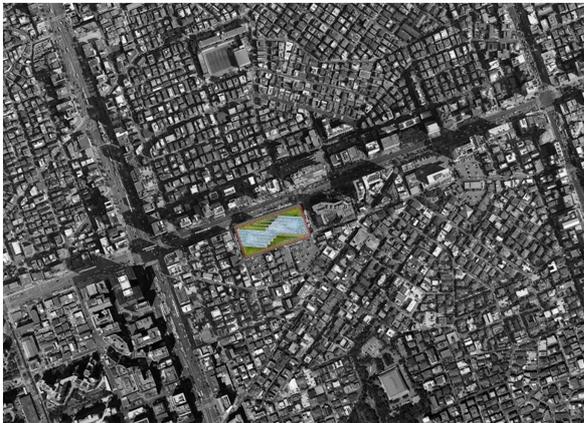
LIGHTWALK, SEOUL, KOREA, 2024



LIGHTWALK, SEOUL, KOREA, 2024



TWIN PEAKS / BONGEUNSA-RO 120



TWIN PEAKS / BONGEUNSA-RO 120 – WAD, with JAD and ANU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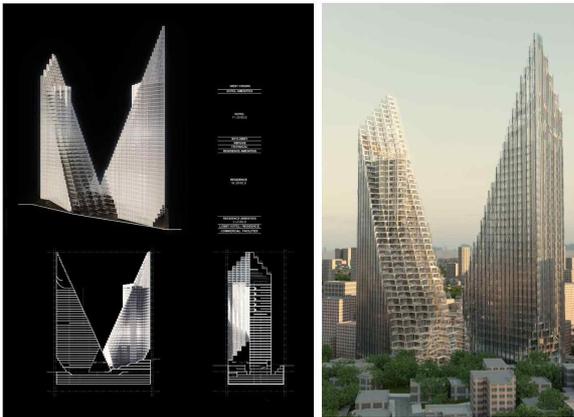
TWIN PEAKS / BONGEUNSA-RO 120 – WAD, with JAD and ANU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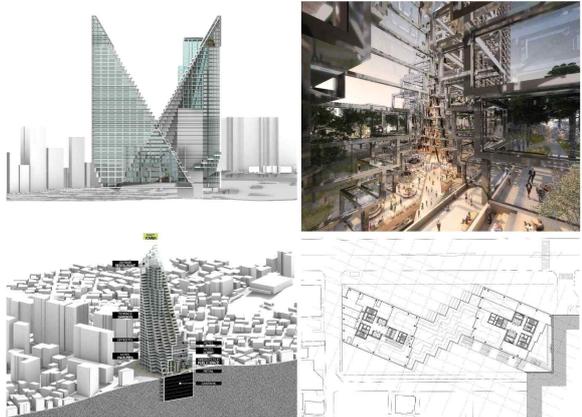
TWIN PEAKS / BONGEUNSA-RO 120 – WAD, with JAD and ANU Architects



TWIN PEAKS / BONGEUNSA-RO 120 – WAD, with JAD and ANU Architects



TWIN PEAKS / BONGEUNSA-RO 120 – WAD, with JAD and ANU Architects



TWIN PEAKS / BONGEUNSA-RO 120 – WAD, with JAD and ANU Architects



TWIN PEAKS / BONGEUNSA-RO 120 – WAD, with JAD and ANU Architects



NONHYUN 114



NONHYUN 114 – PODO Private Residences Seoul Interiors by Fendi Casa, with PURUM Architecture, Maxtrat Architects



NONHYUN 114 – PODO Private Residences Seoul Interiors by Fendi Casa, with PURUM Architecture, Maxtrat Architects



NONHYUN 114 – PODO Private Residences Seoul Interiors by Fendi Casa, with PURUM Architecture, Maxtrat Architects



NONHYUN 114 – PODO Private Residences Seoul Interiors by Fendi Casa, with PURUM Architecture, Maxtrat Architects



APGUJEONG II AND ONE CHEONGDAM DONG



APGUJEONG II – Union of Appujeong II, with dA Group Architects



ONE CHEONGDAM DONG – ASTER Development, with ANU Architects



ONE CHEONGDAM DONG – ASTER Development, with ANU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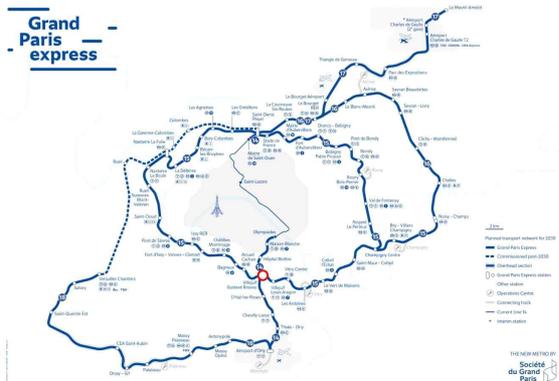


ONE CHEONGDAM DONG – ASTER Development, with ANU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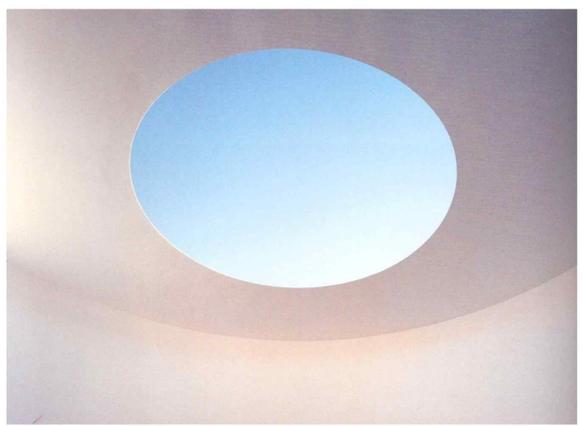
URBAN NETWORK

VILLEJUIF IGR, VILLEJUIF,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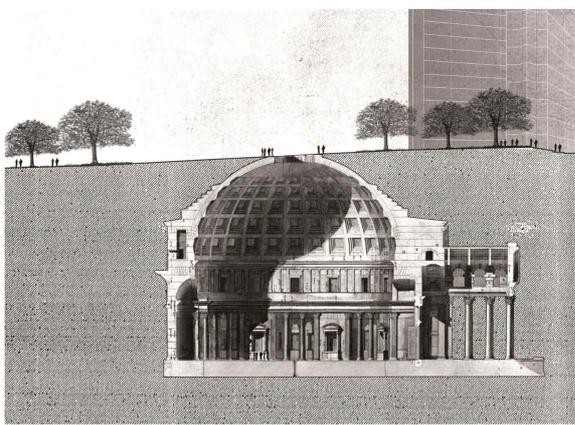
THE URBAN SCALE

VILLEJUIF IGR, VILLEJUIF, 2017



LIGHT

RODEN CRATER, JAMES TURREL, 1979-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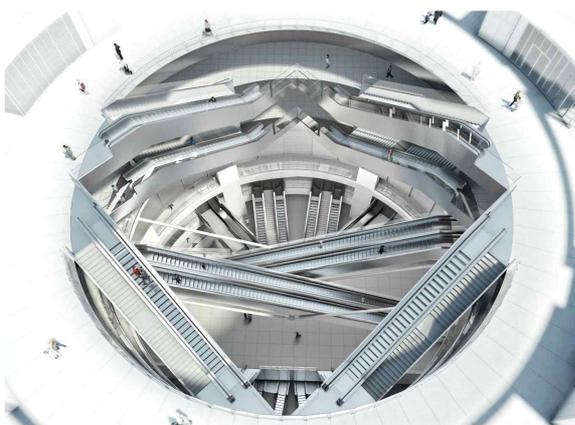
THE URBAN SCALE

VILLEJUIF IGR, VILLEJUIF, 2017



THE URBAN SCALE

VILLEJUIF IGR, VILLEJUIF,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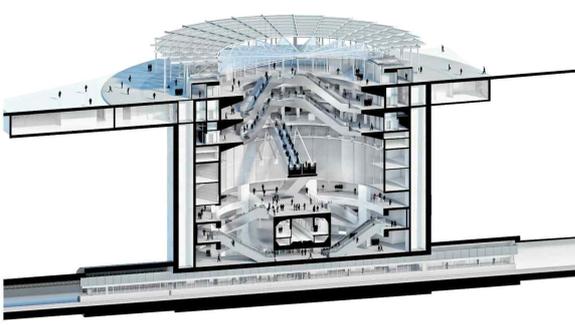
THE URBAN SCALE

VILLEJUIF IGR, VILLEJUIF, 2017



THE URBAN SCALE

VILLEJUIF IGR, VILLEJUIF, 2019



THE URBAN SCALE

VILLEJUIF IGR, VILLEJUIF, 2017



THE URBAN SCALE

VILLEJUIF IGR, VILLEJUIF, 2025



THE URBAN SCALE

VILLEJUIF IGR, VILLEJUIF, 2025



THE URBAN SCALE

VILLEJUIF IGR, VILLEJUIF, 2025

DPA
DOMINIQUE PERRAULT ARCHITECTE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6, rue Bouvier 75011 Paris
+33 (0) 1 44 06 00 00
www.perraultarchitecture.com

LinkedIn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Instagram
@dominiqueperrault

[별첨자료.2]

토머스 헤더윅 노들섬 관련 발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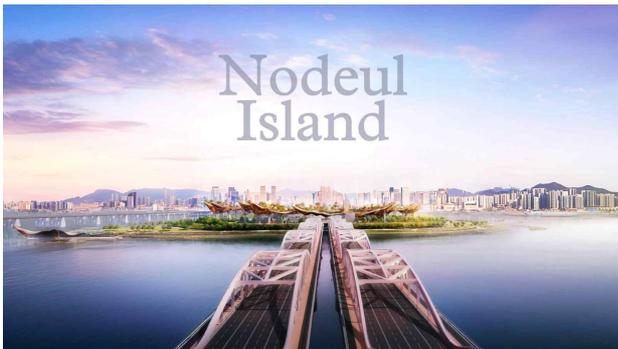


Welcome to
Heatherwick Studio!

Agenda

- 09:30 – 10:00 | Studio tour
- 10:00 – 10:05 | Break
- 10:05 – 10:30 | Nodeul Island
- 10:30 – 11:00 | Seoul Biennale
- TH to leave for another appointment*
- 11:00 – 12:00 | Tour of HS
- Studio's projects at King's Cross
- 12:00 – 12:15 | End of the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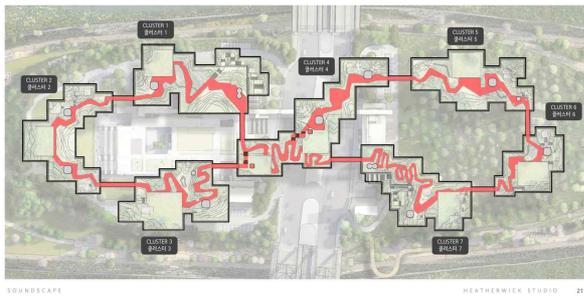
Studio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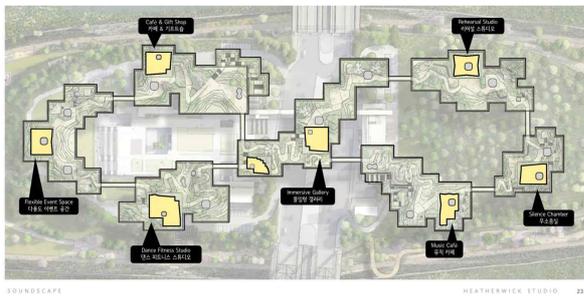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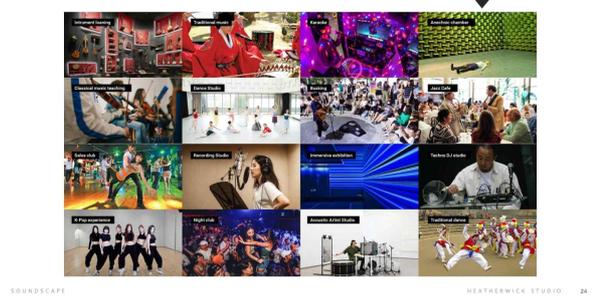
Overall Circulation Plan
종합 동선 계획



Internal Programme Distribution
실내 프로그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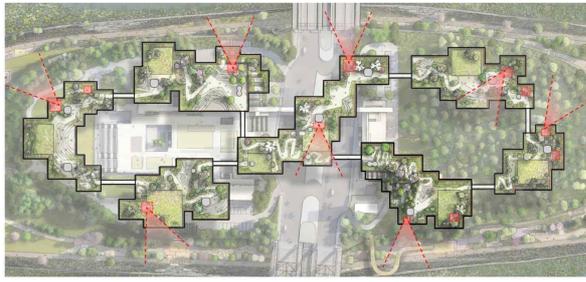


Programme related to Soundscape & Culture
소리 풍경,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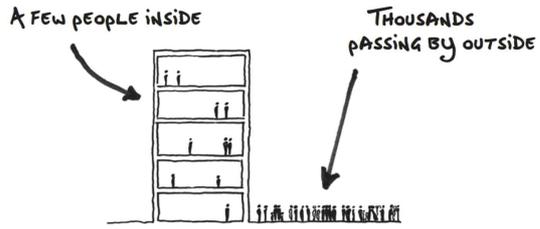




Lookouts & Views
전망대 및 조망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RADICALLY MORE HUMAN



Our passion is the public conver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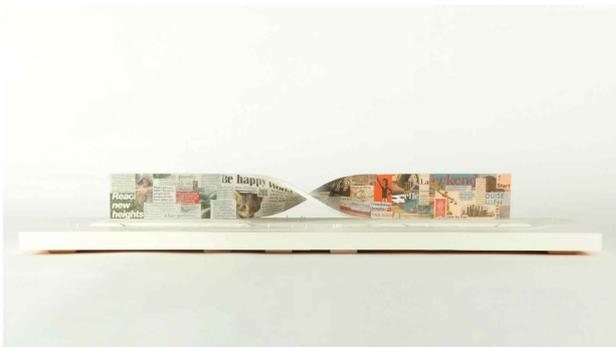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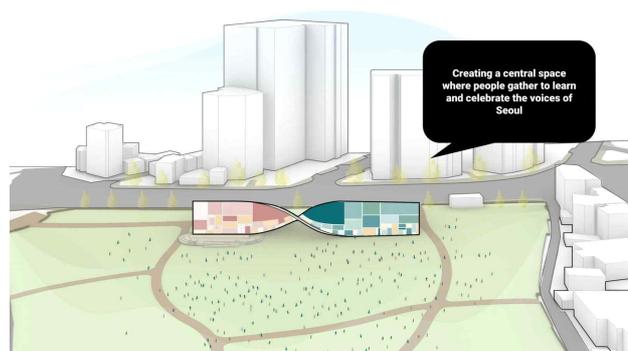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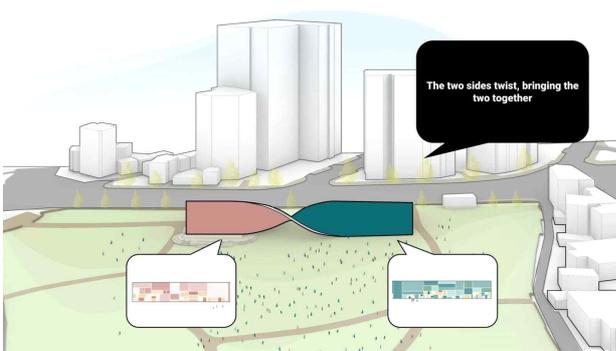


What is radically more human?

How do we make our cities radically more human?

THE Humaine manifesto
How did the problem happen?
What does it look like?

How do people in Seoul think?
What does the city have to say?
What are the best global examples?





1. Commissioned artworks from the community
2. Provocations to resensitize the public
3. Worldwide examples from international designers
4. Commissioned research
5. Visitor interaction & engagement



Creative Communities
"Our Hagwon"



Creative Communities
"A World of Common Things"



Creative Communities
"Soft Ed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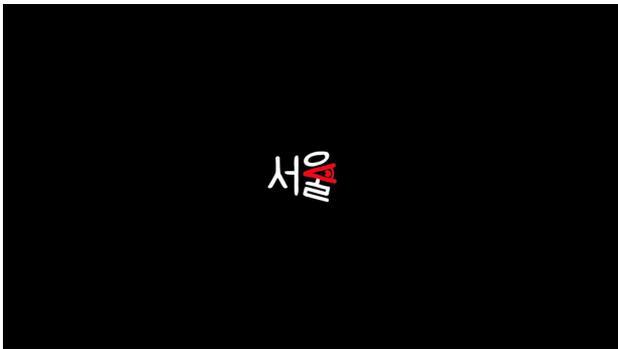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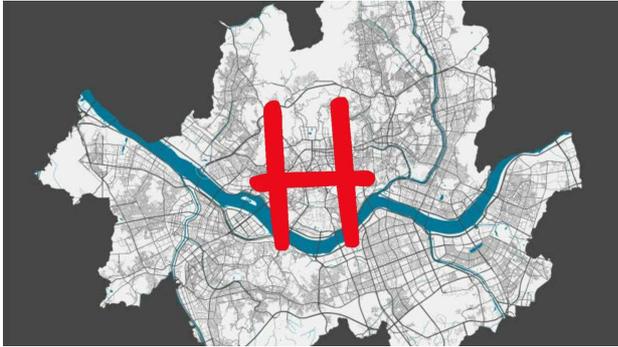
Creative Communities
"If you love Seoul, You can wear it"



Creative Comm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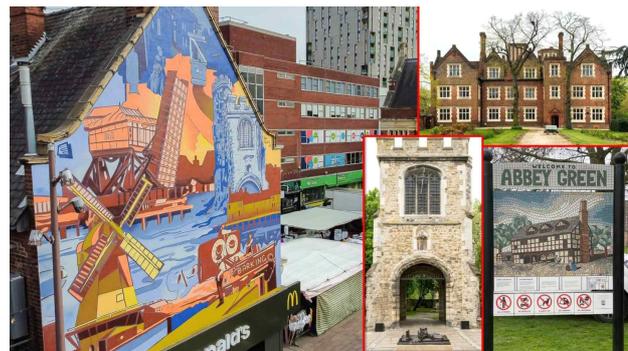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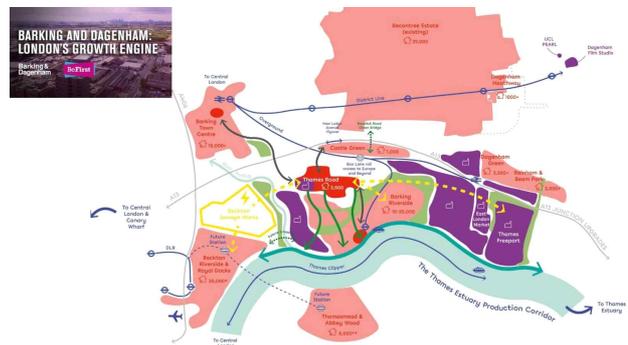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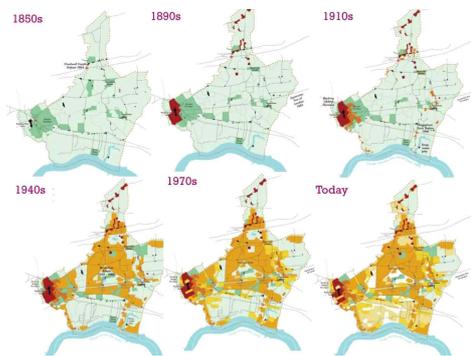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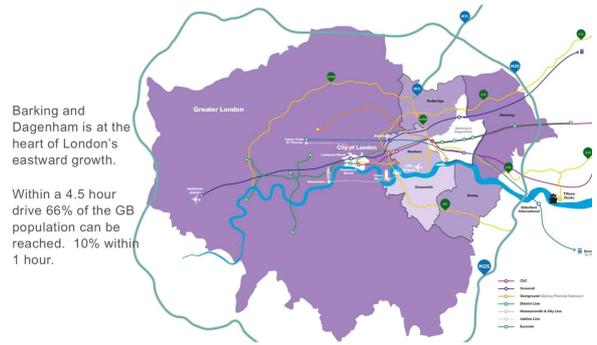
"Walking Drawing"





[별첨자료.3]

바킹앤대그넘 자치구의회 발제자료



Facts and Figures



- 3rd** highest population growth in England and Wales
- Top** highest percentage of residents under 16 in England and Wales
- Lowest** percentage of adult residents with formal qualifications in London
- Highest** percentage of deprived households in England and Wales
- 4th** highest rate of Child Poverty (after housing costs) in the London
- 2nd** highest unemployment rate in the country



Health Statistics



Corporate Plan: Our Vision

We want to make Barking and Dagenham a place people are proud of and want to live, work, study and stay.

We will create and foster the condition and opportunities for people to thrive.

'Our B&D' a refreshed place-based vision is underway with strong focus on **People - Place - Partnerships**



Corporate Plan: Our Principles



Growth Sectors

Barking & Dagenham



<https://bdopportunities.org>



Heal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arking & Dagenham

Last week a 10 year Health Plan was published – strong reference to role of technology and a number of references to South Korea.

"If South Korea are already running AI-enabled hospitals, why aren't we?"
(Page 142)

- Our creation of digital-and-AI enabled modern hospitals draw on international evidence that they can deliver more productive and higher quality care. South Korea's smart hospital networkSM has shown promise in driving efficiencies, higher staff satisfaction and better patient outcomes

Case study: South Korea's National Smart Hospital Programm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SM has adopted a fully digital medical record system and uses autonomous mobile robots to transport supplies, reducing staff workload and infection risks. Its Healthcare Innovation Park supports collaboration across discipline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Samsung Medical Centre has implemented AI-driven predictive analytics to better manage resources, helping to address overcrowding and reduce patient wait times. By forecasting patient flow and adjusting staffing accordingly, the hospital has improved both care qua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At a national level,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has promoted the rollout of smart hospital models across the country. Initiatives include AI-powered infection control, smart outpatient services, and remote monitoring tools. These innovations have helped lower staff stress, boost patient satisfaction, and improve healthcare delivery overall.



Areas for Collaboration

Barking & Dagenham

Smart Cities - good growth, retrofit/Net Zero, sustainable construction & transport



Health – prevention, reducing inequalities, reducing costs, improving quality of life



[별첨자료.4]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공건축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디자인 거장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공건축과 도시공간의 감성적 전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함. ○ 또한 대표단장으로서 도시 복합개발, 공공성 강화, AI기술 융합 등 다양한 주제의 기관방문을 통합적으로 시찰하고, 글로벌 서울형 도시정책의 비전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김 태 수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p>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p> <p>①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D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중심의 도시계획을 넘어 감성과 기억을 담는 도시 건축을 제안하는 대표적 글로벌 건축 그룹으로, 서울 삼성동 현대차 GBC 인근 개발에도 참여 중임. ○ 페로는 “기억을 남기는 공간, 감각을 자극하는 건축이 공공성을 O담보한다”고 강조하며, 건축물 자체가 지형화되어 시민 보행과 조망, 체류를 유도하는 디자인 개념을 소개함. ○ 특히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도시 경관의 일부로 기능하면서도 도시 속 고립된 공간을 어떻게 재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프로젝트로, 서울시가 계획 중인 복합공공건축의 선례로 주목할 		

가치가 있음.

②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

- 영국을 대표하는 창의적 디자인 그룹으로, 도시 인프라와 예술성을 결합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함.
- 런던의 Coal Drops Yard, Google 캠퍼스, New York Vessel 등은 모두 도시의 일상에 감성적 감흥을 더한 사례로, 공공건축이 시민의 ‘비계획적 체류’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 노들섬 설계 제안을 통해 “서울은 기술과 속도,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이며, 이제 감정과 감각도 도시계획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서울시 공공디자인 및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보이는 조형물에서 느끼는 구조물로”라는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③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역(Villejuif - Gustave Roussy Station)

- 도시 공간의 입체화, 지상과 지하의 연결, 교통과 문화 기능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복합공공공간 조성 전략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임.
- 파빌리온은 단순한 교통시설 홍보 공간을 넘어서, 도시계획과 교통 철학을 시민과 공유하는 교육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향후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 대형 환승공간의 재구성 시, 교통-문화-도시기억이 통합된 공간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④ 코올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산업유산을 예술성과 공공성 중심의 복합시설로 전환한 도시재생 사례로, 서울의 준공업지 재정비 및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시사점이 큼.
- 기존 구조물의 물리적 특성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사례로, DPA와 Heatherwick이 공유하는 '건축의 기억 성과 경험성' 철학이 체화되어 있음.

⑤ 파리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rne et Bois)

- 프랑스 정부의 AI 정책을 지역단위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중간지원 기관으로, 기술-복지-주거-교육 등 도시서비스 전반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실험 중임.
- AI 중심 공공서비스가 도시의 인프라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디지털 행정혁신 추진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함.

2. 서울시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서울형 공공건축 혁신 방향

- DPA와 Heatherwick 사례를 통해, 기능과 효율 중심의 기존 공공건축 기준에서 벗어나 감각, 기억, 정체성의 요소를 도입해야함. 이는 서울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청사, 환승센터 설계 시 기준 개정으로 이어져야 하며, 글로벌 건축가들과의 협업 플랫폼 마련이 필요함.

② 입체적 도시공간과 수직 보행체계 강화

- 프랑스 국립도서관처럼 지상-지하, 수평-수직 연결이 유기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체적 설계 기준과 조망·채광·체류 요소가 반영된 도시디자인 도입 필요함.

③ AI와 공공서비스 통합 실험 도입

- 파리동부구역의 사례는 기술기반 정책 실험이 사회적 신뢰 및 복지 연계성과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서울시도 자치구 단위로 실험적 디지털 복지모델(예: AI 민원 도우미, 맞춤형 돌봄 등)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서울시의 글로벌 건축·디자인 협력 기반 구축

- Heatherwick, DPA 등과 같은 세계적 건축그룹과의 정례적 교류, 국제 아이디어 공모 추진,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 글로벌 협업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함.

⑤ 종합 제언

- 이번 연수를 통해 기술과 디자인, 공공성과 상업성, 기능성과 감성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기회였으며, 서울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단편적 혁신이 아닌 통합적 도시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게 되었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대관람차 사업과 한강 버스 도입 구상, 수변복합개발 활성화 정책 등과 관련하여, 선진국 대도시에서의 랜드마크형 수변관광 인프라 구축사례 및 수상·지상 교통 연계, 문화·상업 공간과의 복합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마포구 및 서울시 수변공간 개발에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이 민 석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런던아이(The London Eye)

- 템즈강변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 관광 랜드마크로, 도시 전체의 이미지 형성과 글로벌 인지도 확보에 큰 기여를 한 시설임. 단순한 놀이기구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도시를 조망하고 경험하는 상징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서울시가 구상 중인 ‘서울링(대관람차)’ 사업에 있어, 단순한 흥미 위주의 조형물 조성이 아닌 도시브랜드 강화, 문화적 체험 콘텐츠 결합, 야경 및 수변 풍경과의 연계 설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②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런던 도심 내 수상교통망으로, 출퇴근 및 관광수단으로 기능하며 지하철·버스·철도와 자연스럽게 연계됨. 승강장 접근성, 환승 편의성,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시스템 등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구상 시 참고

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모델임.

- 특히 마포구의 경우, 망원선착장과 지상교통의 연계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임

③ 런던 브릿지 시티(London Bridge City),

도크랜드스&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일대

- 런던 브릿지 시티는 상업·문화·관광·업무 기능이 융합된 수변 복합 공간으로, 도시재생과 민간투자의 균형을 이룬 성공사례로 평가됨. 보행 친화적인 환경과 상설 문화행사, 계절별 조경·광장 콘텐츠 등은 시민 중심의 공간운영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음.
- 도크랜드스 및 그리니치 일대는 과거 항만·공업지대를 대규모 복합지구로 전환한 사례로, 수변공간의 공공성·경관성·주거·문화기능이 통합되었으며, 고밀도 개발과 여유 공간 확보가 공존함.
- 서울 마포구도 한강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난지한강공원, 문화비축기지 등과 연계한 수변복합축 개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교통 허브와 상업·문화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지하·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시민의 체류 시간을 연장시키고 도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 마포구 상암 DMC와 월드컵경기장역 일대, 또는 수색역세권 개발 구역에 이러한 입체 복합공간 모델을 접목하면, 디지털 콘텐츠산업과 대중교통 중심지를 연계한 '디지털문화·교통 복합허브'로 발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음.

2. 서울시·마포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서울 대관람차 구상과 랜드마크화 전략 연계

- 단순 놀이기구가 아닌 ‘도시 아이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위치·야경·문화요소가 어우러져야 하며, 서울의 도시성과 스카이라인을 체험하는 상징 플랫폼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대관람차 주변에 ‘야경 명소화’, 수변문화공연, 특화 조경을 결합하여 체류형 공간으로 유도해야 함.

② 한강 수상교통과 대중교통의 유기적 연결

- 템즈 클리퍼스처럼 수상교통이 육상 환승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마포구 상암~여의도 구간 등에 수상교통 시범노선을 개설하여 IT 기반 예매·환승 시스템, 교통카드 연계 등을 도입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③ 마포 수변공간의 복합공간화

- 난지한강공원~월드컵경기장까지 복합축을 조성하고, 문화·체험·친환경교통 요소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시민공간으로 개발 가능함.
- 수변공원 내 예술전시·공연·자연체험 콘텐츠를 결합하여, 런던 브릿지 시티형의 공공성과 상업성 통합 모델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④ 보행 중심 수변도시 설계 도입

- 런던처럼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수변 보행축 중심의 도시공간을 기획하고, 시민참여형 디자인(조명·벤치·잔디광장 등)을 반영해 생활 속 수변활동을 유도해야 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의 남부터미널 일대 복합개발, 양재천을 포함한 수변공간의 공공성 강화, 도시 내 환승·보행 편의 제고라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도심형 환승허브·수변 복합개발·공공디자인 개선 관련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함 ○ 특히 공공성과 상업성, 이동성과 감성의 균형 있는 도시공간 운영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고 광 민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런던 브릿지 시티(London Bridge City),

도크랜드&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일대

- 수변의 활용을 단순한 경관 감상이 아닌 ‘도시생활의 거점’으로 재정의한 복합개발 사례로 주목됨.
- 기존 건축유산을 보존·재해석한 외관, 광장·공연장과 상업공간의 유기적 연결, 입체적 보행동선 구성은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특히 도크랜드의 DLR 경전철, 수변 전용도로는 복합개발지 내 대중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면서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교통계획 모델로 참고할 수 있음.

②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파리 중심부의 대표적 지하·지상 연계형 복합환승허브로, 자연 채광과 공공성·상업성을 동시에 확보한 캐노피 구조, 입체화된 보행 네트워크가 돋보임.
-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 역시 고속버스·지하철·도시버스 간 환승이 집중된 교통 허브이자 상업 중심지이므로, 보행 중심 환승체계와 공공디자인이 융합된 ‘도시형 복합환승센터’ 구상이 필요함.

③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템즈강 수상버스는 관광과 일상 교통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제4의 도시교통축’으로, 환승 연계와 수상경관 활용이 탁월함.
- 서초구 내 양재천·우면천 등의 수변 공간도 단순한 생태복원이 아닌 ‘문화형 체험 플랫폼’으로 기획해 볼 수 있겠음
- 예를 들어 소형 수상 자율운항 시스템, 스마트쉼터, 수변 예술전시 공간 등을 접목한 도심 속 ‘복합 수변문화축’ 구상이 가능함.

④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역(Villejuif - Gustave Roussy Station)

-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 역에서 구현된 지형화 건축, 감성적 지하공간 디자인,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연출 전략은 서초구 복합환승센터 및 공공건축 개발 시, 기능 중심에서 감각·기억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함.

2. 서울시·서초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남부터미널 복합개발의 입체적 전략

- 기존 교통·상업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환승허브+상업+문화+공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공개발 모델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런던 브릿지 시티처럼 지하철역 상부에 공연장, 도서관, 광장 등을 입체 배치하고, 동선의 입체화를 통해 환승 피로도를 경감하는 설계유도 등이 필요함.

② 공공건축의 감성적 전환

- 도미니크 페로의 '보이는 조형보다, 느끼는 구조' 개념을 반영하여, 공공건축에 시민 체류 유도, 감각 자극 요소, 경험 중심 설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광장과 실내를 연결하는 경사형 동선, 천창 및 캐노피 채광 설계, 수직정원·미디어파사드·공공예술 통합 설계 등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겠음.

③ 양재천을 포함한 수변공간의 기능 다변화

- 양재천을 중심으로 보행+자전거+셔틀버스 등 친환경 교통축을 연계한 도심형 수변 복합이동축 조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 양재시민의숲역-양재천-남부터미널-예술의전당-서초역-반포천-고속터미널 까지 이어지는 '서초문화녹지벨트' 구상도 가능할 것이며, 야간 조명, 전망 브릿지, 수상예술무대 등 감성적 수변공간 조성이 도시 브랜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④ 서울시의 설계·사업 프로세스 개선 제언

- 글로벌 건축가와의 설계 파트너십 제도화, 공모 단계에서 공공성·감성성·도시미학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환승센터나 지하공간처럼 기능 중심 공간에 시민경험 중심의 설계 기준을 도입해, 도시디자인 + 교통계획 + 공간계획의 융합이 필요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 도심 고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 수변지역 활성화, 공공건축의 도시공간 연결성 제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유럽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강동구 및 서울시의 유사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김 영 철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 ①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 대규모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구성한 대표적 사례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넘어 주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공공성을 확장한 공간임.

- ②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DPA)
 - ‘건축의 지형화’를 통해 시민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 내 고립된 장소를 감성적·기능적으로 재활성화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음.
 - 강동구 내 노후 공공시설이나 지하철역 주변의 입체적 활용 방안, 시민 보행환경 개선에 이같은 설계방식을 접목하면 도시 경험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③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역(Villejuif - Gustave Roussy Station)

- 지하공간을 단순한 철도 인프라가 아닌, 빛과 경사, 시야의 흐름을 통해 이용자 친화적 공간으로 만든 사례임.
- 특히 출구 구조와 수직 동선의 효율화, 건축 디자인과 기능의 결합은 강동구 둔촌동역 및 강동구청역 등 기존 역사의 편의시설 개선에 참고할 수 있겠음.

④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강을 활용한 수상교통 체계로, 관광과 통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함.
- 서울시가 구상 중인 한강버스 등과 비교할 때, 강동구와 잠실·압구정·여의도 등을 연결하는 동-서축 수상교통 도입에 있어 타당성 분석과 운항 인프라 확보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⑤ 도크랜드&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일대

- 노후 산업지역을 수변복합개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상업·문화·주거·교통 기능이 통합된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임.
- 서울 동남권 개발과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미래 성장 방향 설정 시, 기능 복합성과 공공공간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음.

2. 서울시·강동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보행약자 편의시설 개선

- 빌쥐프역의 사례처럼, 출입구 경사 개선, 수직 보행 동선의 효율화,

채광 설계를 활용한 심리적 편의 증진 등 기술적 디자인 요소를 강동구 기존 역사 및 공공시설에 도입 필요.

② 수변공간의 공공성 강화

- 도크랜드 및 국립도서관 사례처럼, 강동구 암사·광나루·성내천 수변공간에 문화·교육·소통 기능이 복합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축 연결을 통해 공공성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비 검토가 필요함.

③ 한강 수상교통 도입 검토

- 템즈 클리퍼스의 경로·속도·정시성, 환승체계 등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계획에 강동구의 정류장(예: 암사역 부근)을 포함시키는 구체적 정책 제안이 요구됨.

④ 공공건축 디자인 혁신

- DPA와 같은 건축전문 그룹과 협업을 통해 강동구의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노후 공간을 기능 중심에서 감성·기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입체적 체험이 가능한 시민공간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산업의 전환, AI 기반 공공서비스 확산, 수변복합 개발 등 다양한 도시공간 혁신 사례 조사를 통해, ○ 당산동에 조성 중인 서울상상나라(서남권)와 양육친화주택의 AI기반 생활인프라 확보방안 및 양평·문래동 일대 준공업지역 도시정비와 산업유산 활용 방안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김 종 길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건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 ① 바킹 앤 대그넘 자치구(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 Council)
 - 런던 동부의 대표적 저소득·이민자 밀집 지역으로, AI 및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전환을 통해 복지, 교육, 고용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음.
 - ‘One Borough Voice’ 등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AI 챗봇과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치구 차원의 복지 수요 예측 및 정책 반영 체계를 갖추.

② 파리 동부구역 행정청(Paris Est Mrne et Bois)

- 파리 외곽의 다문화·저소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도시 정책지표 설정,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교육, 고용, 건강 등의 영역에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육아지원센터 등의 복지기반 시설에서 AI 기반 분석 도구를 활용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③ 도크랜드 & 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지역

- 과거 항만·산업지였던 지역을 고밀도 비즈니스·주거·문화·교통 복합지로 탈바꿈시킨 대표 사례로, 수변과 철도, 경전철 등이 융합된 교통 거점 모델임.
- 영등포구 안양천과 도림천 일대도 수변·철도·도로가 만나는 교차 구간이 많으므로, 이들 지역의 교통기반 융합개발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④ 런던 케이블카(London cable car)

- 템즈강을 횡단하는 공중 곤돌라로, 런던시와 민간항공사가 협력하여 구축한 교통수단 겸 관광인프라임.
- 이용객은 관광객 중심이나, 일상적 통근수단으로도 활용되며, 도심 간 수직연결의 상징적 사례로 기능하고 있음.
- 케이블카 운영구간은 접근성과 조망, 체류형 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였으며,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경험을 제공하는 매력적 콘텐츠로 작동하고 있음.

⑤ 코울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산업창고를 문화·상업·공공디자인의 복합공간으로 재생한 사례로, 구조적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보행 중심의 감성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임.
- 이는 문래동·양평동 일대의 문래·양평동의 창고·공장 유산 보존형 정비전략과도 직결되며, ‘철거→신축’ 일변도의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 도시정비 모델로서 유의미함.

⑥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지하 교통시설과 지상 쇼핑·문화공간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도심 내 공공성과 상업성을 균형 있게 조성한 사례임.
- 유리 캐노피 구조를 통해 지상-지하 시각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환기·채광을 유도하며 보행 및 체류 경험을 개선함.
- 향후 영등포역 일대 지하상가 정비 및 환승센터 구축 시에도, ‘보행 중심 복합플랫폼’ 설계로의 구상 전환이 필요함.

2. 서울시·영등포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한강 곤돌라 사업 사전 검토를 위한 유사사례 시찰

- 이번 런던 케이블카 탑승은 서울시가 현재 검토 중인 ‘한강 곤돌라 민간제안사업’ (상암~선유도 구간)의 사전평가 차원에서 시찰한 것으로,
- 향후 서울시 교통 및 관광정책의 적정성, 비용 효율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시민 수용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비교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영등포구와 직접 연결되는 선유도 지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영등포구 지역 내 주요 관광·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도시 콘텐츠 전략이 요구됨.

② 수변공간과 도시철도망의 입체적 연계 필요성

- 그리니치 지역처럼 경전철과 수상버스, 곤돌라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수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향후 영등포구 일대 환승거점(예: 선유도역 등)과 수변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복합 환승체계 설계에 좋은 참고 사례임.

③ 산업유산 기반 창의적 재정비 전략

- 문래·양평동 일대는 철도·창고·공장 등 산업 유산이 밀집된 지역으로, 철거 중심이 아닌 ‘창조적 재활용’이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함.
- 복합문화공간, 공연장, 키즈체험관 등으로 새롭게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머무르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 가능함.

④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 방향

- 수변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기준 완화, 준공업지역 내 복합용도 도입 허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
- 육아지원센터 등의 복지시설 운영시,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시민참여 프로세스 반영 등의 제도적 개선도 고려할 필요 있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복합개발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강남구 도시공간에 대하여 글로벌 건축가의 도시설계 전략과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삼성동 일대 및 강남권 광역복합개발지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 또한 서울 도시정책에 참여 중인 도미니크 페로의 도시·건축 철학을 직접 청취하고, 지하공간 설계, 수직공간 활용, 상징적 공공건축 구현 전략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김 현 기 김(성명)기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 ①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DPA)
- 공공건축, 교통,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기능의 집합체’가 아니라 ‘도시적 경험의 장’으로 설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설계사무소임.
 - 도시 지형과의 조화, 지하공간의 감성적 활용, 다층적 보행 구조 설계에 주목하며, 도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건축적 전략을 지향함.
 - 현재 서울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제시함.

- 페로는 “서울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감성이 부족하다”며, 도시공간이 시민의 감정과 기억을 담는 ‘체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②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 도미니크 페로의 대표작으로, 지형과 건축을 통합하여 대규모 공공시설을 도시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사례임.
- 4개의 타워와 지하 중정, 그리고 광장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도서관의 개방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대도시 중심부에서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존재감을 성공적으로 구현함.
- 도시계획과 건축이 단절되지 않고, 지형적 조건·보행동선·문화기능이 통합되도록 디자인되었는데, 이는 향후 서울의 공공시설 및 복합개발 설계에서도 반영해야 할 중요한 설계 원칙임.

③ 빌쥐프 귀스타브 루시역(Villejuif - Gustave Roussy Station)

- 대심도 철도환승역으로,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지하공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전통적인 수직 승강기 중심 구조가 아닌, 경사형 동선과 자연 채광을 활용한 ‘체험형 이동공간’을 구현함.
- 특히 경사형 보행동선, 자연 채광 유입, 투명한 수직 공간 등을 통해 지상과 지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공공교통시설을 도시 경험의 일부로 통합함.
- 이는 지하공간의 활용이 집중되는 강남권에서 체류형 문화·교통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2. 서울시·강남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설계방향의 고도화

- 강남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은 단순한 업무·상업 기능 집적지가 아닌 서울의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를 구현하는 랜드마크 조성으로 추진해야 함.
- 도미니크 페로가 제안한 ‘수직도시’, ‘지형화 건축’, ‘감성적 공공공간’ 설계 철학을 활용하여 고밀도 도시에 새로운 스카이라인과 이용자 경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② 도시 맥락성과 상징성을 갖춘 공공건축 설계 필요

- 서울의 주요 공공시설 설계 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처럼 기능을 넘어 도시맥락과 시민 정체성을 담은 설계를 지원해야 함.
- 시민이 공간을 통해 자긍심과 기억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감성적 설계 철학을 반영해야 함.

③ 지하공간 통합 전략으로 강남권 공간 재편

- 영동대로·강남대로는 교통 혼잡도가 높은 지역으로, 입체적 공간계획을 통한 보행·문화·교통 복합기능 통합이 필요함.
- 빌취프 귀스타브 루시 역과 같은 체험형 지하공간 설계를 도입하여, 단순 통행공간이 아닌 문화적 체류공간으로 전환해야 함.
- 공공성과 심미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하공간 설계에 입각하여 보행·환승·문화 기능이 통합된 서울형 지하도시 구현에 기여해야 함.

④ 글로벌 건축가와의 전략적 설계협업 제도화

- 공공건축물 및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단순 외주 설계에서 도시의 철학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함.
-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와 같은 세계적 건축 그룹과의 협업을 서울형 설계공모 또는 공공건축기준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 국제 디자인 파트너십은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음.

⑤ 강남권 도시공간 전략의 고도화

- 강남구는 차량 중심 인프라에서 탈피하여 보행 중심·스마트 기반·감성적 공간구성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진화해야 함
- 도미니크 페로의 철학은 도시 스카이라인, 지하공간 통합, 도시 브랜드 재정립 측면에서 서울형 고밀도 지역 전략 고도화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는 이를 선도사례로 삼아, 전역에 확장 가능한 도시디자인 프레임워크 구축을 검토해야 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외곽지역의 균형 발전 전략과 문화 기반시설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연결하는 공공개발 모델을 조사함. ○ 특히 복합문화시설 및 수변 공간, 철도 연계 교통 중심지 개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봉구에서 추진 중인 ‘아레나 복합 개발’ 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박 석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코울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과거 철도 기반 물류기지를 창의·상업·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생한 대표 사례로, 원형 건축물 보존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통해 역사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도시공간을 구현함.
- 단순 쇼핑몰이 아닌 청년 창작자와 시민이 일하고 머무는 도심 커뮤니티 허브로 재탄생하였으며, 방문 당시에도 음악 공연, 전시, 독립서점, 공공정원이 운영 중이었음.
- 특히 철도역 중심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창동역과 연계한 ‘서울아레나’ 개발사업과 유사성이 매우 높음. 철도 인프라, 대형 복합시설, 공공 보행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는 중요한 벤치마킹 포인트임.

② 도크랜드&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지구

- 낙후된 항만 및 산업지대를 고밀도 복합주거·업무·문화·교육·관광 기능이 융합된 수변도시로 탈바꿈한 성공 사례임.
- 수변 친화형 설계, 다층형 환승 네트워크, 고층 스카이라인과 공공 광장의 공존 등은 도시 활력을 수면 위까지 확장시키는 전략으로 작동함.
- 도봉구도 중랑천·우이천 등 수변공간이 인접해 있는 만큼, 이들 공간을 창동 아레나 개발과 연계한 ‘생활문화 수변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③ 파리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rne et Bois)

- 프랑스 중앙정부가 도시외곽 저소득·다문화지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공공서비스 체계를 실험하는 선도기관임.
- 지역 행정청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디지털 포용 허브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민 맞춤형 복지·교육·고용정책이 AI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실행되고 있음.
- 서울 동북권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도 고령화율이 높고, 복지 수요가 많은 특성상 이러한 정책 실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있음.

2. 서울시·도봉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창동 아레나 복합개발과 철도 거점 활성화 연계

- 창동역 일대 ‘서울아레나’ 개발은 단순한 공연장 조성이 아니라, 청년 창업·문화소비·상업활동이 공존하는 복합문화플랫폼으로 기획돼야 함.

- 이에 도심과의 연결성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 속 공간으로 흡수되는 구조 설계가 필수이며, 지하·지상 보행동선의 입체 연결 전략도 함께 수립되어야 함.

② 수변공간을 문화와 연계한 생활축으로 재편

- 도봉구는 중랑천, 우이천 등 수변공간과 인접하여, 도크랜드처럼 수변형 문화공간, 수상교통 연계, 친환경 산책로 조성 등으로 문화 기반시설과 일상적 여가공간을 연계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아레나와 수변공간 간 수직·수평 동선 통합 설계를 통해 단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봉 수변문화축’ 구상이 필요함.
- 더불어 야경 명소화, 수변 조형예술, 야외음악무대 설치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시민 일상에 침투하는 감성적 도시 설계가 요구됨.

③ 디지털 포용과 AI 기반 공공서비스 실험지로서의 도봉구 역할

-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도봉구는 AI 기반 복지 수요 예측, 정책 사각지대 분석,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지로 적합함.
- 파리동부 사례처럼, 행정청사나 도서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시민 디지털접근권을 높이는 공공 플랫폼 시범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겠음.
- 서울시는 도봉구를 시작으로 외곽 자치구에 대한 AI 행정 실증사업을 확대하여 디지털격차 해소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 공공공간의 재생 전략, 역사문화자산과 도시기능의 공존 방식 및 관광과 일상의 균형 있는 공간활용 모델을 조사하기 위해 국외 공공건축 및 수변복합개발 사례를 시찰함 ○ 특히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역사문화와 행정·상업 기능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개선과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확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옥 재 은 (씨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파리 도심 중앙에 위치한 지하상가 및 환승시설 재생 사례로, 상업, 문화, 교통 기능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복합 플랫폼임.
- ‘카노피(Canopée)’라는 유리·금속 지붕 구조는 채광과 환기,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지하공간의 폐쇄성을 극복하였고, ‘Grand Paris Pavillon’은 시민홍보와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는 서울 중구의 서울역, 시청, 을지로입구 등 입체환승 거점 및 지하공간과의 연계 개발 전략에도 도입해 볼 수 있음.

② 코울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과거 석탄운반 창고를 보존하면서, 상업·문화·복지·주거 등이 어우러진 '복합형 도시거점'으로 재정비한 사례임
- 옛 산업시설의 외관과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용도를 삽입해 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제성, 공공성이 공존함.
- 이는 중구의 서울역 일대나 퇴계로 일대 역사문화 자산 보존 재생, 세운상가 일대 정비, 충무로 인쇄골목 개선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석됨.

③ 파리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rne et Bois)

- 이 기관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사회 서비스 혁신 실험의 지역 거점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역할이 디지털 포용과 주민밀착형 행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구 역시 고령화와 외국인 유입 증가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AI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디지털 시민지원 창구 설치, 자동화 민원 응대 시스템 등에 대한 도입 검토가 가능함.

2. 서울시·중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중구 도심지 입체공간의 공공성 강화

- 서울역, 명동, 을지로 등은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폐쇄성과 혼잡도로 시민 경험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음.

- ‘La Canopée’처럼 빛과 바람이 통하는 입체형 공공 캐노피 구조, 복합환승허브와 시민문화공간의 통합적 구성이 서울 도심공간 혁신의 대안이 될 수 있음.

② 세운상가, 충무로 일대 재정비 방식의 재정립 필요

- 단순 철거·재개발이 아닌, ‘Coal Drops Yard’처럼 기존 자산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심 재정비가 필요함.
- 특히 중구의 정체성인 산업+문화+상업의 공존을 유지하면서, 공공디자인, 보행환경,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장을 함께 고려해야 함.

③ 중구형 AI 행정서비스 시범 운영 검토

- 파리동부청 사례처럼, AI 민원 자동응대, 외국인 안내 챗봇, 실시간 인구이동 기반 행정정보 제공 등 디지털 기반의 행정 실험 도입을 서울시 및 중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특히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이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이므로 디지털 접근성과 포용성이 행정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구 지역의 신도시 개발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과제를 염두에 두고, 유럽 선진 도시의 수변 복합개발, 공공건축 설계, 교통체계 혁신, 도시정비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시찰함. ○ 특히 마곡지구를 비롯한 강서구 개발권역이 '주거-업무-문화'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디자인 전략과 도시계획적 통찰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최진혁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도크랜드 & 그리니치 일대(Docklands & Greenwich)

- 런던 동부의 낙후된 항만 및 창고 지역을 고밀도 복합도시로 탈바꿈 시킨 대표 사례로, 업무시설, 고급주택, 문화시설, 교통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지역의 활력을 극대화하였음.
- 특히 DLR(경전철), 템즈 클리퍼스(수상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는 복합개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 이는 마곡지구 및 방화동 일대 한강변을 '수변-교통-업무 복합축'으로 개발하고, 신정나들목~방화대교 구간의 한강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함.

② 코울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과거 철도 물류창고를 보존하면서 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도시재생 사례로, 원형 구조물과 현대적 설계가 조화를 이루며 창의적 공간으로 재탄생함.
- 이곳은 쇼핑몰을 넘어 젊은층과 창작자들이 체류하며 교류하는 도심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마곡지구 및 공항동·방화동 일대 산업·물류 기반 유희시설의 재정비에도 ‘보존과 변형의 균형’을 고려한 공공건축 설계 전략 도입이 요구됨.

③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Forum des Halles)

- 지하철, 쇼핑몰, 공공광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파리 도심 복합 개발 사례로, 유리 캐노피를 활용한 자연 채광 및 시각적 연계성이 뛰어남.
- 강서구 김포공항역과 발산역 일대의 지하공간 역시 복합 환승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입체적 공간설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음.

④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템즈강을 따라 운항되는 수상버스는 관광과 일상 교통을 아우르는 수상 인프라로, 육상 교통과 연계된 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음.
- 강서구의 경우, 한강변 접근이 쉬운 화곡천·봉제산 인근 저지대를 활용한 친수형 여가 및 친환경 이동체계 모델 도입이 가능하며, 향후 수상택시, 수변 관광루트 구상 시 참고할 만함.

2. 서울시·강서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마곡지구의 ‘도시형 수변복합 거점’ 발전 전략

- 도크랜드 사례를 참조하여, 마곡지구를 물류·연구 중심에서 문화·관광·생활 기능이 복합된 도시거점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강변과 도심 기능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이 병행되어야 함.

② 김포공항 및 공항대로 일대 지하공간 재구조화

- La Canopée와 같은 캐노피형 공공구조물 도입을 통해 지하-지상 공간의 연계성, 보행 편의성,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음.
- 김포공항역 복합개발 시 공공성·감성적 체험요소를 강화해야 함.

③ 산업 기반지역의 문화적 재해석 필요

- 공항동, 화곡동 등 산업 기반 지역은 Coal Drops Yard처럼 유휴 공간을 보존·재해석해 문화 콘텐츠 및 생활문화 기반시설로 재편할 수 있음.

④ 한강과 연계된 친수형 도시여가·교통 전략

- 화곡천, 궁산천 등과 연결된 녹지축 및 보행로를 활용하여, 자전거·보행·친환경 이동수단이 결합된 입체적 저탄소 교통망 조성이 필요함.

⑤ 강서구 공공건축 설계에 감성적 디자인 요소 반영

- 단순 기능 중심의 공공시설을 넘어, 시민 체류성, 감성적 경험, 도시 맥락을 반영한 공공건축 설계 기준이 요구됨.
-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부터 적용이 가능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 면목선 추진, 중랑천 수변활성화 등 지역 도시정책 과제를 염두에 두고, 영국·프랑스의 도시재정비, 수변복합개발, 교통 및 산업 전환 사례를 종합적으로 시찰함. ○ 특히 AI 기반의 도시 서비스 실험, 수변지역의 공공성 강화 전략, 도심 내 산업지의 재생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중랑구의 미래 공간전략에 반영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음.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박 승 전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파리동부구역행정청(Paris Est Mrne et Bois) /

바킹 앤 대그넘 자치구(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 Council)

- 두 기관 모두 AI 기반 공공행정 혁신과 디지털 포용지표 구축을 통해, 지역 기반의 데이터 중심 행정체계를 구현하고 있음.
- 특히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스마트 교통 정책, 자동응답 민원 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동시에 제고하고 있음.
- 중랑구가 향후 AI 복지·고령자 케어 시스템, 행정 자동화, 스마트시티 기반 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② 코울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철도·항만 기반의 노후 산업지대를 문화·상업·관광이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생한 대표 사례들임.
- 특히 철도기반시설의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 보행 중심 공간 구성, 공공성과 창의성의 조화가 돋보임.
-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에 있어 산업자산을 단순 철거하기 보다는 도시경관 자산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함.

③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경사형 보행로, 자연채광, 시각적 개방성을 활용한 지하공간 감성 설계가 핵심임.
- 이는 향후 면목선 역사, 신내환승센터 등 중랑구 내 주요 지하공간 개발 시, 기능성과 체험성의 통합 설계 전략으로 활용 가능함.
- 프랑스 사례처럼 지하와 지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설계 기법을 통해, 이용자의 공간 경험과 도시 경관 품질을 높일 수 있음.

④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도크랜드스&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수변개발

- 수상교통과 여가, 문화, 친환경 이동체계가 융합된 수변 복합 전략임.
- 이는 중랑천 수변 활성화 사업, 중랑천-망우천 통합 프로젝트에 있어 단순 산책로 조성을 넘어서, 문화·상업·수공간 체험이 결합된 생활 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시사함.

2. 서울시·중랑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억과 미래의 결합'

- 런던의 Coal Drops Yard처럼 산업기능의 흔적을 존중하면서도 문화·상업·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발전략이 필요함.
- 단순한 주거용 고밀도 개발을 넘어서 공공디자인, 철도 문화 체험, 창업지원 등 도시콘텐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② AI 기반 행정 실험지로서 중랑구 기능 제고

- 파리동부청 사례처럼 중랑구를 디지털 포용도시, 행정 자동화 시범지구로 설정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예측, 실시간 민원응답, 고령자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겠음.
- 서울시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 정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스마트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함.

③ 수변공간의 복합문화지구화

- 단순 보행축이 아닌, 공연장·수상카페·야간경관 명소 등 복합 기능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함.
- 중랑천과 망우천의 통합 연계, 수직적 연결 보행계획, 야간경관 및 스마트조명 시스템 도입 등도 병행 검토 필요함.

④ 지하 공간의 감성적 전환

- 면목선·신내역 등 개발 시, 지하공간을 단순 통행이 아닌 체험 공간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 조명, 음향, 재료감 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공공성 + 감성적 체류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천구 시흥동은 전통적인 준공업지역과 주거지, 근린상권이 혼재된 복합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산업 쇠퇴에 따른 도시공간 재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이에 산업유산 재생, 수변·교통 복합도시 모델, 지하·지상·수변 연계 공공공간 설계 등 선진 도시 사례를 직접 시찰하고, 이를 통해 금천구 맞춤형 도시공간 혁신 전략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25년 7월 2일(수) ~ 7월 9일(수)

활동자	성 명	최 기 찬 (서명)
	소 속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검 토 의 견

1. 기관방문 및 시찰 관련 검토의견

① 도크랜드&그리니치(Docklands & Greenwich) 수변개발

- 과거 항만과 창고 중심의 낙후 지역을 고밀도 복합지구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임.
- 업무시설, 고급주택, 교통 및 문화시설이 통합된 도시공간으로 재생되었으며, 특히 경전철(DLR), 수상버스, 대중교통 중심의 연결성 확보가 핵심 전략으로 작용함.
- 금천구 시흥동 일대도 가산·독산역과 안양천변, 그리고 향후 신안산선 등을 연계해, 복합기능이 융합된 '서남권 도시거점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음.

② 코울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

- 철도 물류창고의 외형과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며, 상업·문화·공공 기능을 접목한 창의적 재생 사례임.
- 금천구 시흥동과 가산디지털단지 주변의 산업자산 리디자인 시, 철거 중심이 아닌 ‘보존·전환형 설계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젊은 창작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유입할 수 있는 감성적 콘텐츠 공간 기획이 중요함.

③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Westfield Forum des Halles)

- 대중교통 환승 허브와 대규모 상업·문화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하·지상 복합 구조로, 가산·독산 지역 내 환승역사 및 지하공간의 공공성 강화 전략으로 시사점이 큼.
- 금천구의 향후 도시기반시설 정비 시, 지하공간의 자연광 유입, 보행 친화적 설계 등을 참고할 필요성 있음.

④ 템즈 클리퍼스(Uber Boat by Thames Clippers)

- 수상버스가 일상 교통과 관광 기능을 모두 수행하며, 수변도시와 도심을 연결한 사례임.
- 금천구는 안양천을 통해 한강과 연결되므로, 향후 친수형 보행로 및 도시 수변축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겠음.
- 한강 연계 수변공간에는 문화·카페·전시장 등 감성형 콘텐츠 접목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

2. 서울시·금천구 적용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준공업지역 재정비 시 ‘보존과 창조’의 균형 전략 도입

- 시흥동과 가산·독산 일대는 철거 중심 개발보다, 기존 산업 구조를 재해석하는 ‘창의적 도시재생’ 모델 도입이 필요함.
- 공연장, 미디어 콘텐츠 제작소, 창업 인큐베이터 등 복합문화산업 플랫폼 유치로 지역 활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②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연계전략

- 런던 도크랜드 사례는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고밀도 복합개발 및 교통 연계가 이뤄진 대표적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안양천변 및 시흥동 일대 재정비 시, 수변활성화·보행 연계·수직·수평 통합개발을 실현하는 모델로 삼을 수 있음.
- 특히, 하천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업무·주거·문화·여가 기능을 균형 있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③ ‘도시 인프라 융합 거점’ 기획 필요

- 금천구의 산업지(시흥·가산), 수변지(안양천), 철도망(1호선·GTX-B 예정)이 교차하는 지점은 잠재력이 높은 복합 개발지역임.
-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공의 도시공간 전략과 민간투자의 창의적 개발이 공존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함.

④ 디자인 기반의 공공시설 재구조화

- Coal Drops Yard 사례는 금천구 지역의 산업 유휴공간을 감성적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 모델이 될 수 있음.
- 향후 시흥동·독산동 일대에 도서관, 청년문화공간, 가족복지시설 등 공공건축 설계 시 적용 가능할 것임.

카피킬러 기본결과 확인서

서울특별시청
카피킬러캠퍼스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지도교수	본인
성명	성명
서명	서명

이메일	seoul3@seoul.go.kr	표절률	3%
성명	심현보		
소속	차탈로 기재하세요		
검사번호	00318369188		
검사명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문서명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pdf		
비교범위	[현재첨부문서] [카피킬러 DB]		
평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카피킬러 <input type="checkbox"/> GPT킬러	발급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보기 <input type="checkbox"/> 요약보기 <input type="checkbox"/> 상세보기
발급일자	2025.07.29 11:25	검사일자	2025.07.29 11:15
비고			

평가 설정					
인용/출처 포함 문장	검사 대상 제외	법령/경전 포함 문장	검사 대상 제외	목차/참고문헌	검사 대상 제외

표절기준			
어절	6	문장	1

본인	검토 의견
성명	
서명	

지도교수	검토 의견
성명	
서명	

본 확인서는 seoul3@seoul.go.kr 사용자가 카피킬러에서 표절검사를 수행한 표절분석 결과에 대한 문서로 카피킬러 표절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자료입니다. 문서 작성 기준이 각 학교, 기관마다 다르므로 최종 평가자의 표절평가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석 정보						
표절률	전체 결과	동일 문장	의심 문장	GPT 의심 문장	인용/출처	법령/경전
3%	63	0	55	0	8	0

비교 문서 정보		
번호	표절률	출처정보
1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EVENT 유아 식기 끝판왕 등장! 리틀립 실리콘 흡착 식판 : 네이버 블로그
2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서평단 모집] 오늘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야 / 효니 : 네이버 블로그
3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관광학공부)뉴욕 첼시마켓 성공사례를 통해본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및 관광단지화에 대한 아이디어...
4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공유] [서평이벤트] 제566차 헬로우 시리즈(5권 중 1권 택일).. 발행 : naver
5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이벤트] 베베케어 우미샌들 체험단 모집 발행 : naver
6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공유] [이벤트] 베베케어 우미샌들 체험단 모집 발행 : naver
7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공유] [이벤트] 베베케어 우미샌들 체험단 모집 발행 : naver
8	1%	[카피킬러 DB] mojitoginger.blog.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런던에 가면 꼭 둘러볼 멋진 샵들 인테리어 맛보기 발행 : naver
9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런던에 가면 꼭 둘러볼 멋진 샵들 인테리어 맛보기 발행 : naver
10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공유] 고려원 복스[스틸레토 힐을 신는 여자]모집시작-누구.. 발행 : naver
11	1%	[카피킬러 DB] hankuknews.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코로나 - 한국관광여행신문 통합 검색
12	1%	[카피킬러 DB] n.news.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개회식 하루 앞둔 파리, 마스코트 '프리지' 인기도 상승 [올림픽] 저자 : 뉴스1 발행 : 뉴스1,20240725204700
13	1%	[카피킬러 DB] hankuknews.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올림픽 - 한국관광여행신문 통합 검색
14	1%	[카피킬러 DB] hankuknews.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한류 - 한국관광여행신문 통합 검색

분석 정보						
표절률	전체 결과	동일 문장	의심 문장	GPT 의심 문장	인용/출처	법령/경전
3%	63	0	55	0	8	0

비교 문서 정보		
번호	표절률	출처정보
1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EVENT 유아 식기 끝판왕 등장! 리틀립 실리콘 흡착 식판 : 네이버 블로그
2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서평단 모집] 오늘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야 / 효니 : 네이버 블로그
3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관광학공부)뉴욕 첼시마켓 성공사례를 통해본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및 관광단지화에 대한 아이디어...
4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공유] [서평이벤트] 제566차 헬로우 시리즈(5권 중 1권 택일).. 발행 : naver
5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이벤트] 베베케어 우미샌들 체험단 모집 발행 : naver
6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공유] [이벤트] 베베케어 우미샌들 체험단 모집 발행 : naver
7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공유] [이벤트] 베베케어 우미샌들 체험단 모집 발행 : naver
8	1%	[카피킬러 DB] mojitoginger.blog.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런던에 가면 꼭 둘러볼 멋진 샵들 인테리어 맛보기 발행 : naver
9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런던에 가면 꼭 둘러볼 멋진 샵들 인테리어 맛보기 발행 : naver
10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공유] 고려원 복스[스틸레토 힐을 신는 여자]모집시작-누구.. 발행 : naver
11	1%	[카피킬러 DB] hankuknews.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코로나 - 한국관광여행신문 통합 검색
12	1%	[카피킬러 DB] n.news.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개회식 하루 앞둔 파리, 마스코트 '프리지' 인기도 상승 [올림픽] 저자 : 뉴스1 발행 : 뉴스1,20240725204700
13	1%	[카피킬러 DB] hankuknews.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올림픽 - 한국관광여행신문 통합 검색
14	1%	[카피킬러 DB] hankuknews.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한류 - 한국관광여행신문 통합 검색

30	1%	[카피킬러 DB] blog.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일명 : [탈육아][해외원정]즐거움은 나의 몫, 부끄러움은 너의 몫_제2화_악마의 편집_제1장_모든것은 순조로웠다.• 발행 : naver
----	----	---